

STARTUP INVESTMENT REPORT

2019

스타트업 투자 리포트



VENTURE SQUARE

서울창업허브 

2019 스타트업 투자 리포트 개요

2019 스타트업 투자 리포트는 벤처스퀘어가 2019년 한 해 동안 투자사와 피투자사가 공식적으로 투자 사실을 기사화하거나 발표한 데이터 스퀘어베이스(SquareBase)를 기반으로 삼은것이다. 2019년 스타트업 투자 규모별, 업종별, 성별, 투자사별 등 전반적인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도록 구분했으며 리포트에 언급한 스타트업은 국내 스타트업과 중소, 중견 기업으로 한정했으나 한인 창업가(또는 공동창업자)가 설립한 해외 기반 기업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 또 대기업군으로 분류되는 기업이나 대기업 자회사는 제외했다는 점을 알려둔다.

스타트업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를 따르는 벤처캐피털협회 분류 방식을 1차 벤치마킹했으며 해외 분류 기준을 참고해 벤처스퀘어가 자체 설정한 기준에 따라 11가지로 분류했다. 여성 기업은 창업자 가운데 적어도 1명이 여성일 때를 기준으로 삼았다. 블록체인은 투자 금액에는 법정화폐 투자와 코인 투자 모두 포함되어 있다. 또 일부 투자 사례는 타 매체를 통해 기사화됐어도 벤처스퀘어 데이터 내에 누락됐을 수 있다.

STARTUP
INVESTMENT
REPORT
2019

2019

목차 | CONTENTS

EXECUTIVE SUMMARY..... 02

2019 연간 투자 트렌드 04

월별 주요 투자 이슈 타임라인..... 06

투자 규모별 트렌드 분석 10

투자 분야별 트렌드 분석..... 12

주요 분야별 특징..... 14

지역별 투자 트렌드 분석 18

성별 투자 트렌드 · 여성 기업 분석 20

2019 인수합병 트렌드 분석 22

메가 라운드 투자 및 유니콘 기업 24

2019 총 투자 금액 TOP 20..... 26

중복 투자 유치 기업 28

2019 스타트업 투자사 트렌드 29

2019 스타트업 생태계 10대 뉴스 32

2019 투자 트렌드 · 2020 투자 전망 38

2019년에 이뤄진 총 투자 건수는 모두 **615**건이며 투자 유치 금액은 **3조 9,692억 6,546만** 원 인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 건수는 2018년 418건에서 615건으로 47% 증가했고 투자 유치 금액은 4조 9,150억 6,000만 원에서 1조 이상 줄었다. 투자 유치금이 감소했지만 이를 투자 생태계 위축으로 보긴 어렵다. 2018년 총 투자 유치금액 중 89%가 쿠팡의 대규모 투자 유치(2조 4,000억 원) 단 1건 때문이란 점을 고려했을 때 2019년은 2018년 대비 투자 건수, 투자 유치금 모두 증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2019년 가장 많은 투자가 이뤄진 업종은 **150**건을 기록한 **소비자제품/서비스**였다. 소비자 제품/서비스는 가장 많은 스타트업이 속한 업종으로 여가, 푸드, 구직, 취미 클래스, 반려동물 분야에서 여러 차례 투자가 이뤄졌다. 특히 밀레니얼 세대를 타겟으로 삼은 플랫폼이 주목받은 한 해였다. 주요 기업으로는 야놀자, 트리플, 클래스101, 마이리얼트립 등이 있다.

가장 많은 투자 금액을 유치한 분야는 **유통/서비스**로 총 **1조 1,344억** 투자가 이뤄졌다. 2018년 처럼 위메프, 컬리, 티켓몬스터 등 이커머스 강세 속 무신사, 발란, 에이블리, 브랜디 등 패션 분야 플랫폼이 눈에 띄었다.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배달, 배송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쿠팡이프레스, 바로고 등 물류 분야도 성장세를 이어갔다.

2019년에는 부동산과 기술의 합성어 **프롭테크**가 핫 키워드로 떠올랐다. 한국프롭테크포럼이 사단법인으로 공식 출범했고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산하 프롭테크산업협의회도 발족했다. 직방이 1,600억 대형 투자를 받으며 넥스트 유니콘으로 떠올랐고 패스트파이브, 스파크플러스 등 공유오피스 및 고스트키친, 오픈더테이블 등 공유주방이 2018년에 이어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이외에도 낙후된 지역을 살리는 도시 재생 기업에 대한 투자도 이어졌다.

금융 분야는 안정된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투자 순위 상위권에 든 기업 대부분이 250억 원 이상 투자를 유치했다. 대표 기업은 레이니스트, 밸런스히어로, 피플펀드, 테라핀테크 등이다. 금융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사건은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가 인터넷은행에 도전, 한 차례 고배를 마신 후 국내 **3번째 인터넷은행** 타이틀을 얻은 것이다.

2018년은 블록체인 분야가 크게 주목 받았던 해였지만 2018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블록체인 침체기**는 2019년까지 이어졌다. 업계에서는 거품이 꺼지고 내실을 다지는 해라는 얘기가 나왔다. 하지만 조용한 시장 분위기 속에서도 940억 이상 자금이 블록체인 기술에 투자되는 등 관심은 꾸준히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000억 원 이상 메가 라운드 투자 유치에 성공한 기업은 위메프, 야놀자, 무신사, 카플렛, 직방, 컬리, 샌드버드 등 7개 기업으로 이들 기업이 조달한 투자 금액은 전체 투자 유치 금액의 34% 이상을 차지

했다. 2019년 가장 많은 투자 금액을 유치한 기업은 두 차례 자금 조달에 성공하며 4,700억 원을 유치한 **위메프**다.

2019년 가장 핫한 인수합병 건은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요기요 운영사 딜리버리히어로에 **매각**된 사례다. **4조 7,500억** 가치로 딜리버리히어로에 매각된 우아한형제들은 조인트벤처 ‘우아DH아시아’를 통해 국내를 넘어 아시아 시장 석권에 나설 계획을 밝혔다.

상장 모델이 다양해지면서 스타트업 상장 소식도 연이어 전해졌다. 언어 빅데이터 기업 **플리토**는 사업모델 특례 상장으로 코스닥에 입성했다. 아시아의 디즈니를 꿈꾸는 어린이 콘텐츠 전문 기업 **캐리소프트**도 같은 모델로 10월 상장에 성공했다. 인공지능 기반 의료 솔루션 기업 **JLK인스펙션**은 12월 기술특례 상장을 마쳤다. AI신약개발사 **신테카바이오**는 성장성 추천제를 통해 코스닥에 입성했다. 이커머스 종합 솔루션 기업 **코리아센터**는 코스닥에 안착하며 유럽과 동남아 지역 물류센터 구축에 나설 것이라 예고했다.

2019년 투자 유치에 성공한 여성 기업은 **52**곳이다. 52개 기업은 중복 투자를 포함해 모두 62건 투자를 유치, 총 3,038억 7,000만 원을 조달했다. 여성 기업이 유치한 금액은 2019년 전체 투자 금액 중 7.7%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켓컬리를 운영하는 컬리가 2회 투자를 유치해 1,350억 투자금을 모았으며 이어 트리플, 마이셀럽스, 클래스101 순으로 투자 유치금이 많았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19년 **유니콘 기업**을 공식화한 스타트업은 야놀자, 위메프, 지피클럽, 무신사, 에이프로젠 5곳이다. 2018년 쿠팡, 옐로모바일, L&P 코스메틱, 크래프톤, 비바리퍼블리카, 우아한형제들 등 6개였던 유니콘 기업은 2019년 **11**개로 늘어났다.

2020년에도 유니콘은 늘어날 전망이다. 직방, 컬리가 차기 유니콘 후보로 언급되는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가 기술보증기금과 함께 상반기에 걸쳐 **예비 유니콘 기업**을 선정했다. 선정 기업은 리디, 와디즈, 마이리얼트립, 스타일쉐어, 왓챠, 레이니스트 등 **27**곳이다.

2018년 대비 2019년에는 초기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액셀러레이터와 벤처캐피털 모두 투자 기업 수와 금액을 늘리는 양상이었다. 투자 자금이 시중에 풍부하게 풀리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벤처캐피털은 후속 투자에도 적극 참여, 유망한 기업이 지속성장하는 데 기여했다.

국내 시장에 유입된 해외 자본 출처는 미국, 일본, 중국, 홍콩, 싱가포르 등이며 실리콘밸리 기반 **알토스벤처스**가 2018년에 이어 국내 스타트업에 가장 많은 투자를 진행한 해외 투자사로 나타났다.

2019년 1~12월까지 615건 투자가 진행됐다. 이는 전년도 418건 대비 47% 오른 수치다. 총 투자 유치금은 3조 9,692억 6,546만 원으로 매월 평균 3,307억 원이 벤처 및 스타트업에 투입됐다.



월별 투자 금액 및 투자 건수 추이

(단위 : 억 원)

월	투자 건수	투자 금액
1	54	1,614
2	36	1,610
3	34	1,178
4	45	2,906
5	37	3,608
6	46	3,962
7	68	3,541
8	49	2,970
9	46	5,522
10	79	5,569
11	73	3,400
12	48	3,810
총계	615	39,6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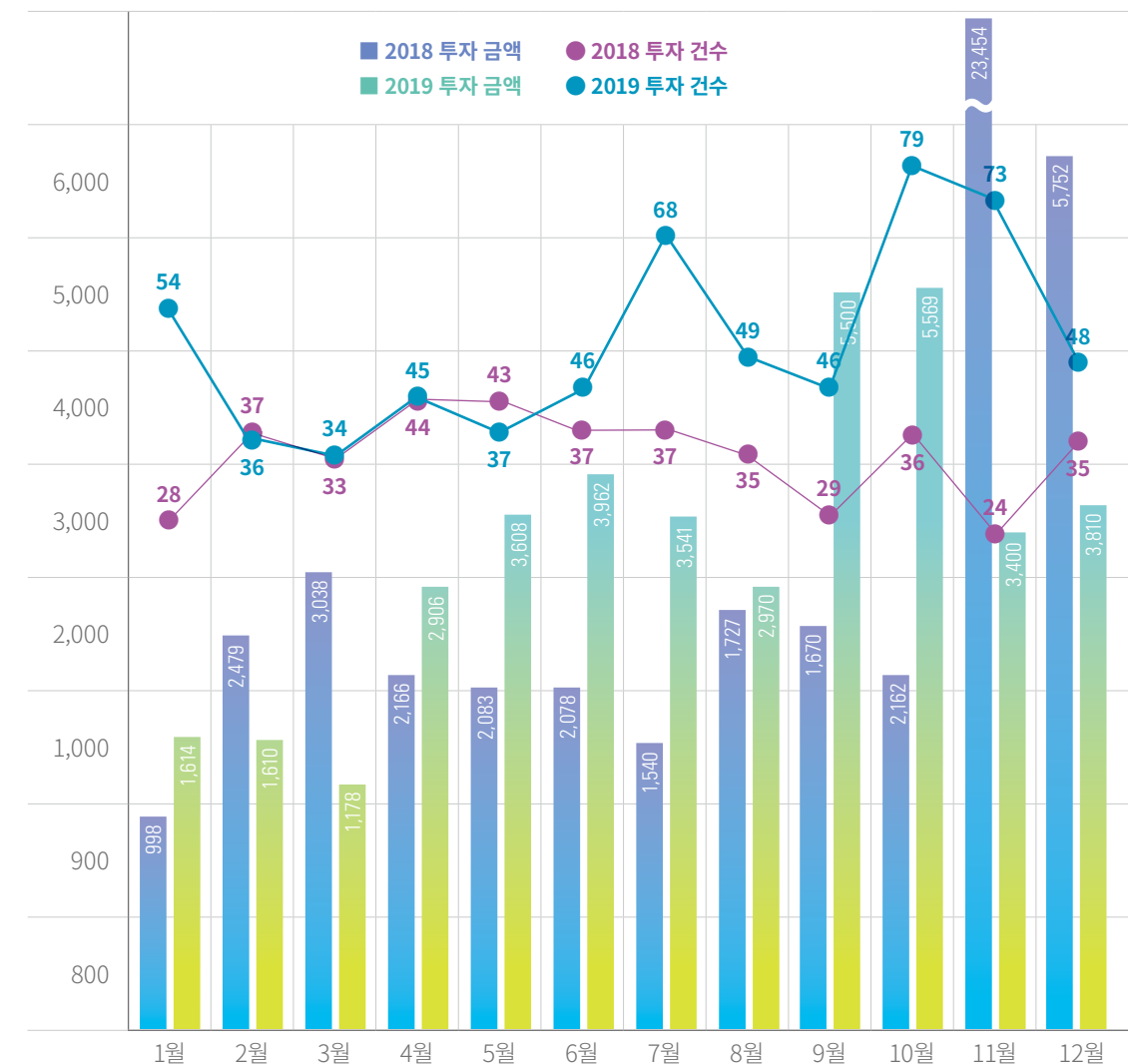
※ 벤처스퀘어 2019 자료 기준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19년은 1분기부터 벤처 투자액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기 시작해 매 분기 역대 최고치 금액을 넘어섰다. 이후 11월에 발표한 마지막 투자 동향 자료에서는 벤처 투자액이 3조 8,000억 원을 넘어 연 4조 원을 돌파 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전하기도 했다.

벤처스퀘어 자료 기준에서도 1분기를 지나 본격적으로 투자 금액이 늘어나기 시작, 9월과 10월에는 각각 5,500억 원 이상이 벤처 기업에 유입되면서 월 최대 규모 투자가 이뤄졌다. 결과적으로는 1~12월 동안 3조 9,692억 6,546만 원의 투자가 이뤄졌고 중소벤처기업부가 예측했던 4조 원에 육박하는 투자금이 몰렸다. 이는 정부의 적극적인 벤처활성화 정책과 매 분기 신규 벤처 투자 및 벤처 펀드 결성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데 따른 결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연초 모태펀드 1조 원을 출자한 바 있다. 또 투자 및 출자금에 대한 소득 공제와 투자 수익에 대한 비과세 등 세제 혜택을 늘리며 민간 중심 벤처생태계로의 전환을 유도했다.

2018년 대비 월별 투자 금액

(단위 : 억 원)



※ 벤처스퀘어 2019 자료 기준



토스가 5월 제3인터넷 은행 예비 인가 탈락 이후 770억 원 투자금을 확보하며 다음 단계로의 도약을 준비했다. 해당 투자에서 토스는 홍콩투자사 에스팩스를 비롯한 글로벌 투자자로부터 기업가치 2조 7,000억 원을 인정받았다. 모바일 자산 관리 서비스뱅크샐러드 운영사 레이니스트도 450억 원 투자를 유치했다. 레이니스트는 시리즈C 라운드에서 당초 목표 금액보다 초과 모집을 달성하며 대세 핀테크 스타트업에 대한 관심을 재확인했다.

모빌리티 스타트업 투자와 인수 소식도 이어졌다. 코드42와 킥고잉 운영사 올룰로는 현대자동차로부터 투자를 유치했다. 공유 전동킥보드 고고씽 운영사 매스아시아가 대전 지역에서 활동하는 동종업계 스타트업 알파카를 인수하며 사세 확장에 나섰다. 7월과 마찬가지로 여성 창업 기업 투자가 가장 많이 이뤄진 달이다. 뉴스레터 기반 뉴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뉴닉을 비롯해 오늘회, 해피문데이, 단색, 닥터다이어리, 켄페이스, 심플리오, 매스아시아, 더패피 등 여성 창업 기업이 투자 소식을 전했다.

7월

8월

9월

프롭테크 업계가 들썩인 여름이었다. 직방이 골드만삭스 PIA, 알토스벤처스 등으로부터 1,600억 원을 확보하고 상업용 부동산 정보 플랫폼 네모를 운영하는 슈가힐을 인수했다. 세어하우스 우주에 이어 2019년 두 번째 프롭테크 스타트업 인수다. 390억 원 투자를 유치한 패스트파이브는 공유오피스를 포함한 라이프 스타일 전반을 아우르는 부동산 서비스 회사로 진화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연쇄 창업가 엄수원 대표가 이끄는 아드리엘을 비롯해 핀다, 그림, 단색, 잇마플, 펫트너, 매치, 펫피플, 빅펫 등 여성 창업 기업도 투자 소식을 전했다. 지인추천 채용 플랫폼 원티드는 2년 만에 100억 투자 유치 소식을 알렸다. 유전체 빅데이터 기반 신약개발사 신테카바이오는 프리 IPO 단계에서 200억 원을 확보했다. 유튜브 웹드라마로 성장세를 이어온 와이낫미디어도 105억 원 시리즈B 투자를 유치했다.

넥슨코리아가 위메프 구원투수로 등판했다. 위메프는 넥슨코리아로부터 3,500억 원 투자를 이끌어내며 자본잠식 돌파구를 마련했다. 당근마켓은 알토스벤처스 주도로 진행된 투자라운드에서 400억 원을 확보하며 중고거래 서비스를 넘어 지역 생활 플랫폼으로 진화를 예고했다. 배달의민족 출신 최정미 대표가 이끄는 고스트키친은 92억을 수혈하며 공유주방 시장 판을 한 층 키웠다. 심명섭 전 위드노베이션 대표 웹하드 논란 이후 전문경영인 체제로 운영되던 여기어때가 3,000억 원 가치를 인정받으며 글로벌 사모펀드 CVC캐피탈에 매각됐다. 야놀자는 데일리호텔과 이지테크노시스를 인수하며 사업 확장에 나섰다.

1년 중 가장 많은 투자가 이뤄진 달이자 투자금액 또한 5,569억 5,000만 원으로 제일 높은 달이었다. 총 투자 건수는 79건으로 게임 분야를 제외한 전 영역에서 투자가 이뤄졌다. AI 기반 딥러닝 머신비전 기업 수아랩이 토종 AI 기업으로는 처음 해외 기업에 인수됐다. 코그넥스가 밝힌 인수가는 2,300억 원이다. 렌터카 예약 앱 카플렛은 휴맥스 등으로부터 1,996억을 확보하고 국내 주차장 운영업체 하이파킹을 인수했다. 온오프라인 모빌리티 플랫폼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다. 코드42는 2019년에만 세 번째 투자 유치 소식을 알렸다.

블록체인 투자도 9건으로 가장 활발했다. 스케일 네트워크가 해시드 등 외국계 투자사로부터 205억 투자를 유치하고 아이콘루프가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100억 원을 확보했다. 여성 창업기업이자 제주 테마파크 스타트업 모노리스는 제조, 지역 이종교를 뚫고 100억 원 자금 확보에 성공했다.

10월

11월

12월

K-뷰티 위상을 전 세계에 드러낸 달이다. 토종 뷰티 브랜드 닥터자르트 제조사 해브앤비가 에스티로더 품에 안겼다. 해브앤비 몸값은 2조 원대로 세계 시장에서 K-뷰티 경쟁력을 다시금 확인시켰다. 온라인 커뮤니티로 시작해 Z세대 대표 패션 커머스로 성장한 무신사는 2조원 대 가치를 인정받으며 2,000억 원 투자금을 확보했다. AI기반 피부암 진단 분석 전문기업 스펙클립스는 글로벌 뷰티 헬스케어 기업 셀리턴과 합병했다. 렌딧은 P2P 금융기업으로는 최초로 정부 공공기관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정책자금지원을 받게 됐다. 미디어커머스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가운데 어덱트도 120억 원을 확보하며 시장 선전에 나섰다. 11월은 여성 창업 기업 투자가 가장 적었던 달이기도 하다. 섹슈얼웰니스 세이브뱅크와 반려동물 돌봄 서비스 펫트너 두 곳만이 투자 유치 소식을 알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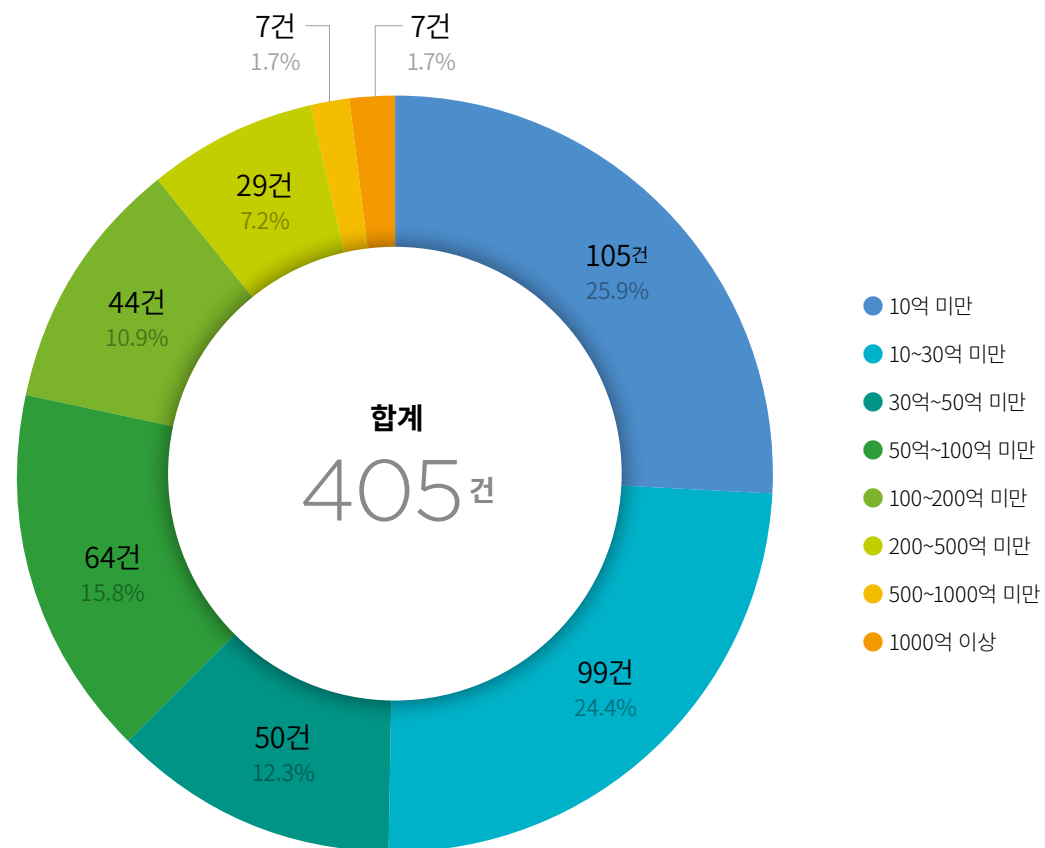
국내 1,2위 배달앱 배달의민족과 요기요가 한 가족이 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업계가 들썩었다. 인수합병 딜에서 4조 7,500억 원 몸값을 기록한 1세대 유니콘 우아한형제들은 요기요 운영사 딜리버리히어로와 손잡고 아시아 시장으로 향했다. 위메프가 1,200억 원을 추가 수혈하며 이커머스 경쟁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블루포인트파트너스는 80억 원 투자를 유치한 딥테크 액셀러레이터로 기록됐다. 토스 운영사 비바리퍼블리카는 LG유플러스 PG사업부를 인수하며 혁신 결제서비스를 예고했다.

대규모 투자 소식도 이어졌다. 스폰라디오 운영사 마이쿤은 450억 원, 스트라드비전은 316억 원, 캘린더 공유 서비스 타임트리는 216억 원 투자 유치 소식을 알렸다. 여성멤버십서비스 헤이조이스 운영사 플래너리는 20억 원 규모 프리시리즈A 투자 유치 소식을 알렸다. 국세청 주류 고시 해석 문제로 맥주 정기배달 서비스를 중단해야 했던 벨루가는 카카오톡 서비스로부터 투자를 유치하며 B2B 종합 주류 유통 플랫폼으로 도약을 알렸다.

투자 금액을 공개한 405건을 분석한 결과 10억 미만 구간(26.0%)에서 가장 많은 투자가 진행됐고 특히 5~10억 미만 투자(60건)가 가장 많았다. 2018년에는 10~30억 미만 구간이 25.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과는 다른 흐름이다. 10억 미만 투자는 전년과 비교해서도 투자 건수가 72% 늘면서 가장 큰 증가세를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금액별 비율은 전년과 크게 다르지 않은 양상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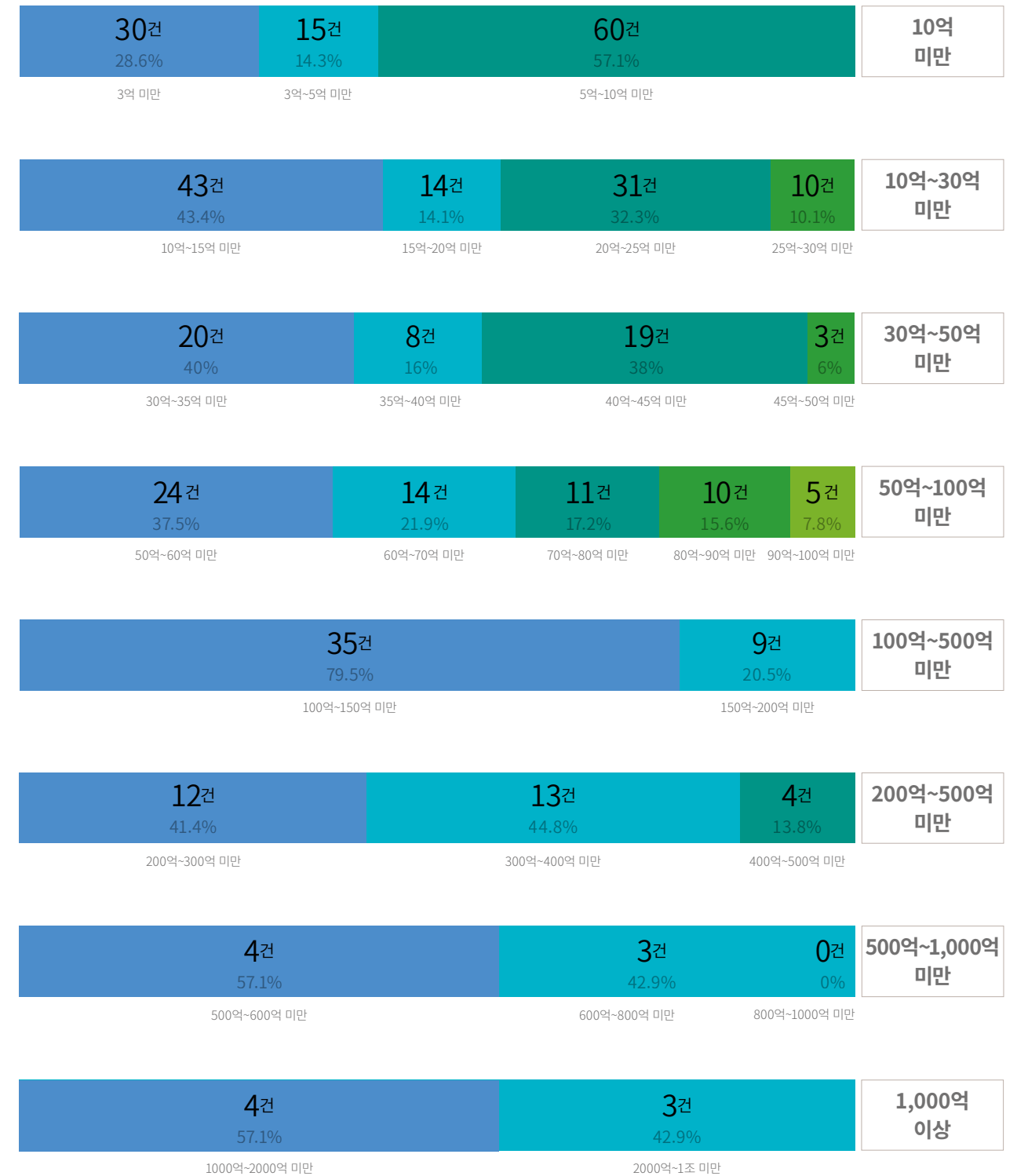
10억 미만 투자에서는 소비자 제품/서비스(36건), 소프트웨어(24건), 헬스케어/바이오(13건) 순으로 많았으며 10~30억 미만 투자에서도 각각 21건, 19건, 13건으로 순위는 같았다. 거의 모든 금액대에서 소비자 제품/서비스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지만 500억 원 이상 투자(14건)에서는 유통/서비스가 6건으로 대규모 투자 비중이 가장 높았다.

투자 금액별 건수 비율



※ 벤처스퀘어 2019 자료 기준

투자 구간별 세부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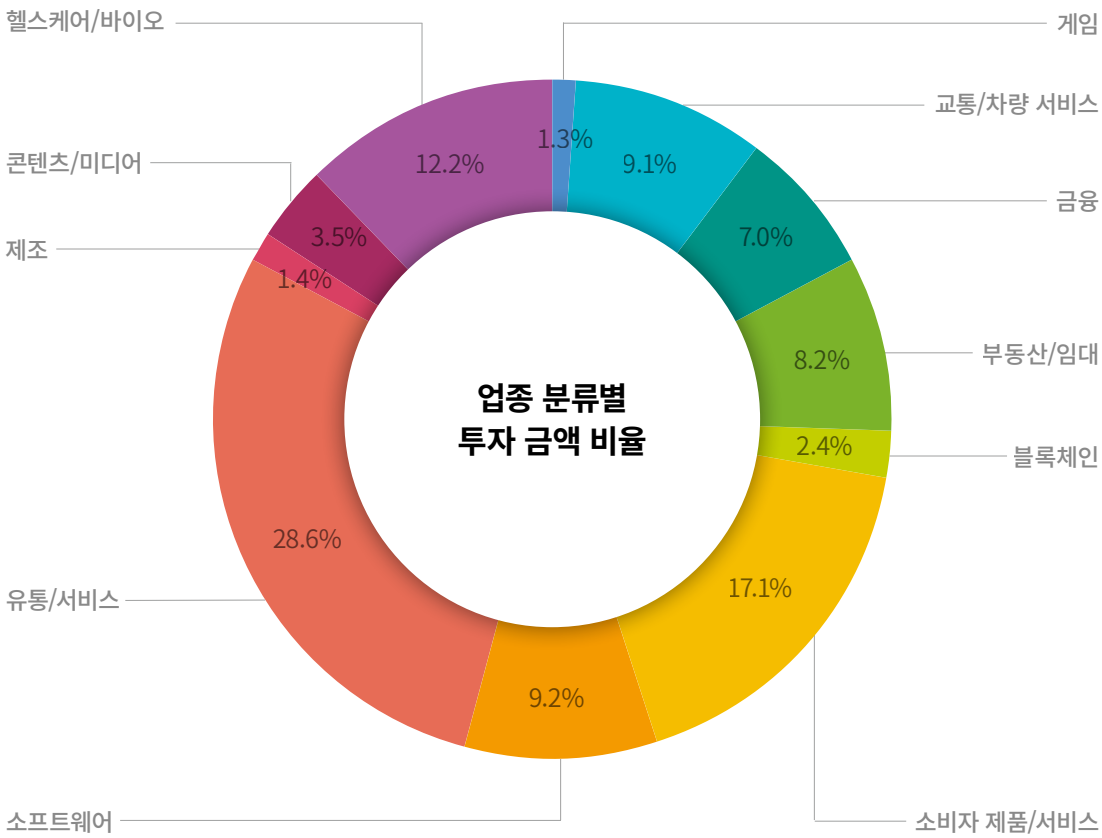
※ 벤처스퀘어 2019 자료 기준

분야별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와 해외 스타트업 분류 방식을 모두 참고해 자체 기준을 만들어 모두 11개(소비자 제품/서비스, 소프트웨어, 헬스케어/바이오, 유통/서비스, 콘텐츠/미디어, 제조, 금융, 게임, 블록체인, 부동산/임대, 교통/차량 서비스)로 분류했다.

2019년 투자가 가장 잦았던 분야는 150건에 걸쳐 총 6,809억 5,000만 원을 유치한 소비자 제품/서비스 (131곳)였다. 세부 분야는 여가와 푸드, 구직, 주거 등이며 여행 중개와 취미 클래스 플랫폼, 반려동물 관련 서비스 스타트업이 다수 속해있다.

가장 많은 투자금이 몰린 분야는 유통/서비스다. 유통/서비스 분야 스타트업 61곳은 모두 72건 투자를 유치했다. 소비자 제품/서비스와 비교하면 절반에 못 미치는 수치다. 그러나 총 투자금액은 1조 1,344억 원을 달성하며 소비자 제품/서비스를 2배 가까이 앞질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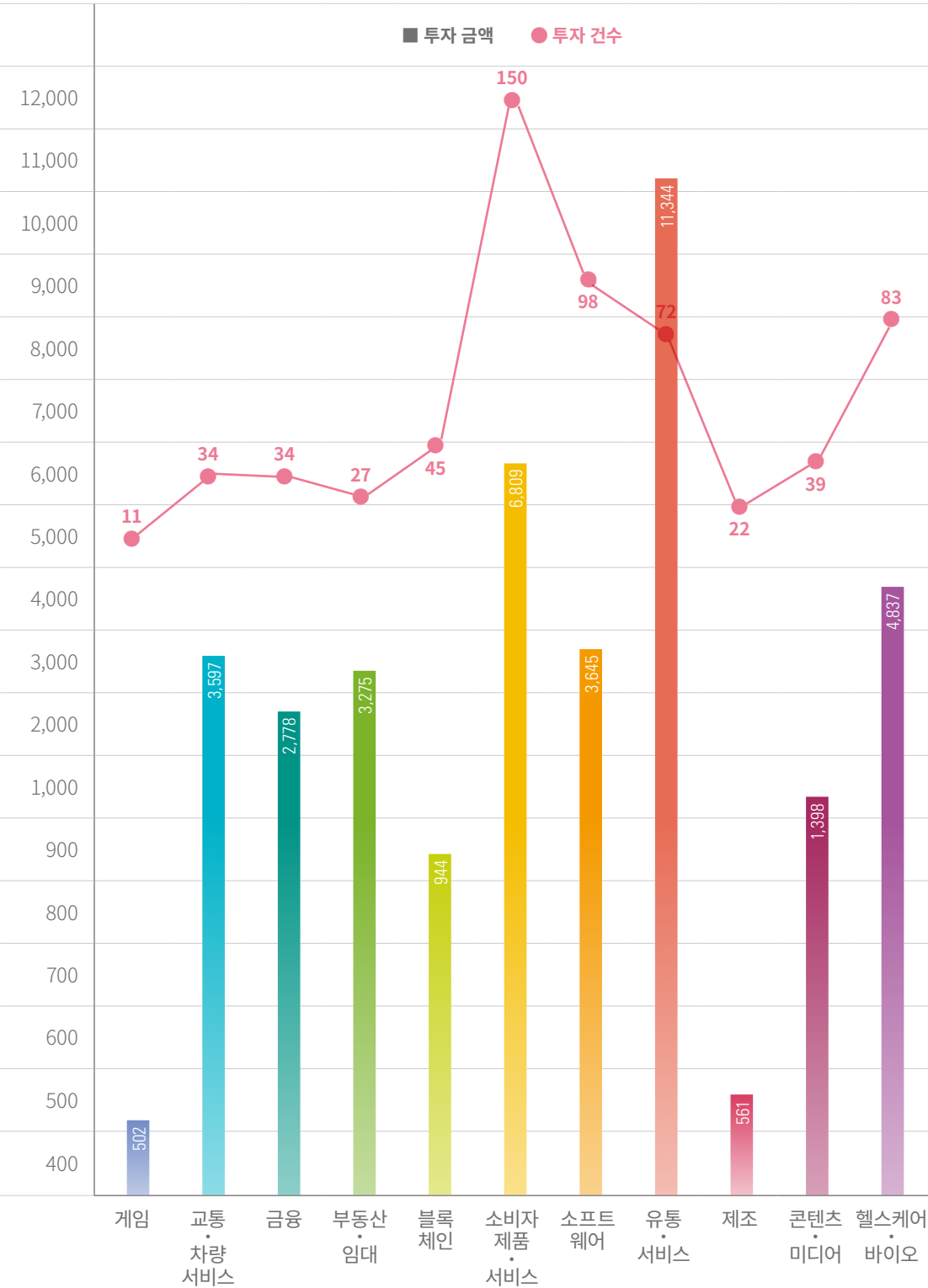
2019년에는 교통/차량 서비스와 부동산/임대 분야 성장이 돋보인다. 두 분야는 모두 지난 2018년 투자 건수는 각 7건, 투자금액은 각 1,097억 원과 527억 원을 기록하며 다른 분야에 비하면 규모가 몹시 작은 편이었다. 반면 2019년에는 교통/차량 서비스는 26개 기업이 34건에 걸쳐 총 3,597억 원을, 부동산/임대에서는 24개 기업이 27건에 걸쳐 3,275억 원을 유치하며 비약적으로 성장했다.



※ 벤처스퀘어 2019 자료 기준

업종 분류별 투자 금액 및 투자 건수

(단위 : 억 원)



※ 벤처스퀘어 2019 자료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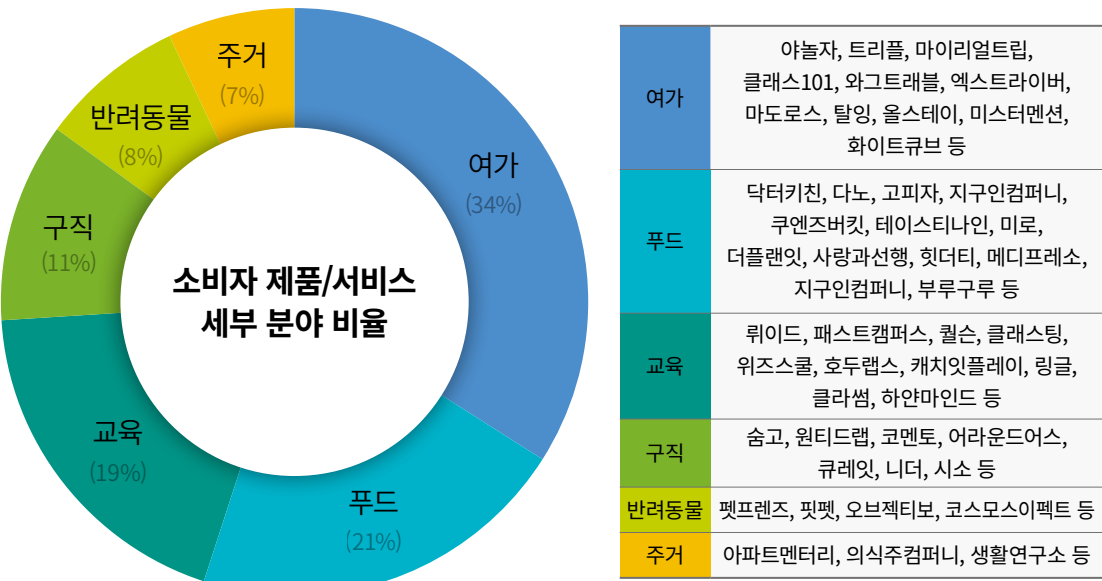
1. 소비자 제품/서비스

131개 기업이 전체 4분의 1에 가까운 150건 투자를 유치하며 총 6,809억 5,000만 원을 끌어왔다. 2018년(120건, 6,195억 원)과 비교하면 투자 건수는 25%, 금액은 10% 가량 증가했다. 여행, 숙박, 푸드, 반려동물, 육아, O2O를 비롯한 플랫폼 서비스가 여기 해당하며 주요 기업으로는 아놀자(2,130억 원), 미미박스(395억 원), 와디즈(310억 원), 트리플(300억 원), 루이드(200억 원), 마이리얼트립(170억 원), 테이스티나인(160억 원), 숨고(125억 원), 클래스101(120억 원), 와그트래블(115억 원), 마켓디자이너스(104억 원), 아파트먼트리(100억 원), 원티드랩(100억 원), 펫프렌즈(100억 원) 등이 있다.

주요 세부 분야로는 여가, 푸드(푸드테크), 교육(에듀테크), 구직, 반려동물, 여성(팸테크) 등이 있다. 이 가운데 2018년 투자 유치 기업이 가장 많이 포함된 분야는 교육(22곳, 43.14%)이었다. 반면 2019년에는 여가 분야 기업이 가장 높은 비중(29곳, 34%)을 차지하며 총 3,179억 원을 유치했다. 그 뒤는 푸드(18곳, 21%), 교육(16곳, 19%) 분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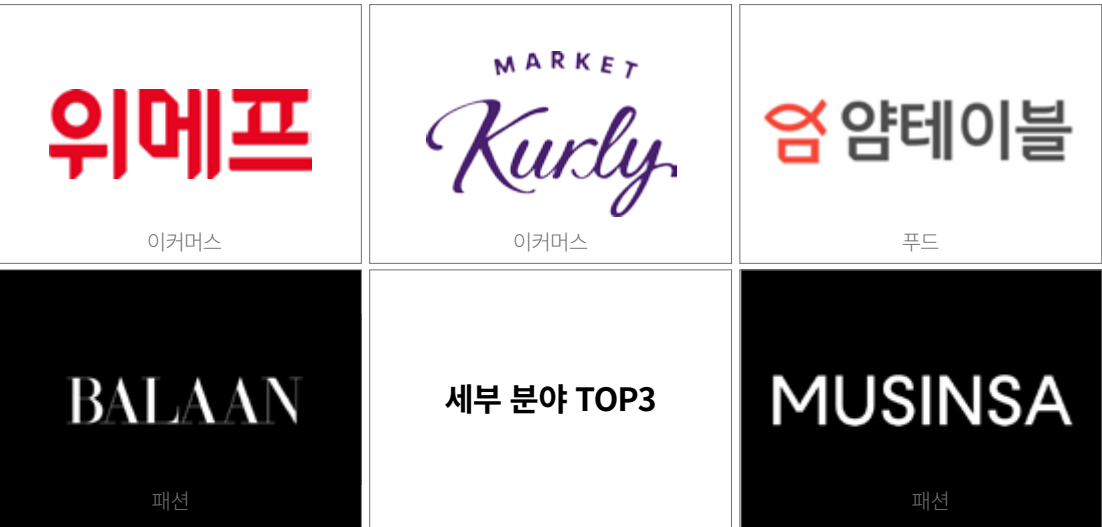
여가 분야는 여행 상품, 숙박뿐 아니라 온라인 취미, 원데이 클래스 플랫폼이 성장을 견인했다. 취미 플랫폼 클래스101(120억 원), 재능 공유 O2O플랫폼 탈잉(40억 원)이 대표적이다. 2개 기업 모두 2015년 설립된 곳으로 업력은 이미 5년차에 접어들었다.

그밖에 비교적 초기 단계지만 마찬가지로 취미 클래스 플랫폼을 운영하는 밍글링, 몽우, 솜씨당 역시 투자를 유치했다. 업계 관계자는 “정규반 과정보다는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원데이 클래스 비중이 더 크다. 기업 부서나 동호회가 모임용으로 클래스를 활용하기도 한다”며 “색다른 체험을 원하는 이들 사이에서는 이색 클래스가 인기”라고 밝히기도 했다.



※ 벤처스퀘어 2019 자료 기준

2. 유통/서비스



2018년에는 43건에 걸쳐 2조 6,902억 원을 유치했다면 2019년에는 투자 건수(72건)는 늘고 투자 금액(1조 1,344억 원)은 줄었다. 이는 쿠팡이 2018년 11월 소프트뱅크로부터 2조 4,000억 원 대규모 투자를 유치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19년에도 투자금액은 전체 28% 가량을 차지하며 전년과 마찬가지로 두 번째로 누적금액이 높았던 소비자 제품/서비스를 크게 앞질렀다.

2018년에는 쿠팡이 선두였다면 2019년에는 위메프가 두각을 나타냈다. 위메프는 2차례에 걸쳐 4,700억 원을 유치하며 이커머스 분야 투자금 비중을 끌어올렸다. 유통 분야 투자금액 상위권에 해당하는 무신사(2,000억 원), 컬리(1,350억 원), 티켓몬스터(500억 원) 역시 이커머스 기업이다.

산업별로는 패션(투자 17건), 푸드(투자 20건)가 두드러진다. 무신사뿐 아니라 명품 커머스 발란이 100억 원, 쇼핑앱 에이블리와 브랜드가 각각 70억, 60억 원을 유치했고 시가총액 100억 원대 판매 플랫폼 패브릭타임, 패션직도매 잇스팩토리, 의류 택배 대리수령 피팅스토어, 국내 패션브랜드 해외 진출 플랫폼 틸투윈과 같이 틈새 시장을 공략한 곳들이 시드~시리즈A 투자를 유치하기도 했다.

식품에서는 컬리를 필두로 수산물 커머스 앰테이블(70억 원)과 오늘회(40억 원), 축산 유통 육그램(30억 원)과 클리버(20억 원)를 비롯한 특정식품 전문유통 서비스가 돋보인다. 간식 정기배송 위편, 환자 간편식 정기배송 잇마플 등 정기배송 서비스는 투자 금액은 크지 않았지만 역시 11건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3. 금융

2019년에도 종합 모바일 금융 서비스와 P2P가 강세였다. 2018년 1,340억 원을 유치한 비바리퍼블리카는 2019년 770억 원을 유치하며 또다시 금융 분야에서 가장 많은 투자금을 유치했다. 비바리퍼블리카는 한차례 고배를 마신 끝에 2019년 12월 금융위원회로부터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인가를 받아 국내서는 3번째 인터넷은행으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뱅크샐러드 운영사 레이니스트(550억 원), 인도 모바일 월렛 앱

트루밸런스 운영사 밸런스하이로(260억 원) 역시 종합 모바일 금융 서비스로 중복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P2P금융도 여전한 성장세를 드러냈다. 2018년 123억 원을 확보한 피플펀드는 380억 원 규모 시리즈D 투자를 유치했다. 전년도 100억 원을 투자받은 테라핀테크도 220억 원 시리즈B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4. 소프트웨어

기업용 메시징 솔루션이 투자금액(1,253억 원) 측면에서는 강세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기업·고객 관리 메시징 솔루션 개발사 센드버드는 미국 벤처캐피털과 사모투자사로부터 2월과 5월 각각 580억 원대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센드버드는 국내서 창업한 뒤 실리콘밸리 액셀러레이터 와이콤비네이터 투자를 받으며 미국으로 이전한 바 있다. 투자 유치 직후에는 마케팅, 세일즈 확대로 글로벌 시장 입지를 키우겠다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애드테크(AdTech) 스타트업도 몸집을 키우고 있다. 퍼포먼스 마케팅을 비롯해 AI, 데이터 분석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마케팅 수요가 늘어난 데 따른 흐름이다. 185억 원 규모 시리즈D 투자를 유치한 모바일 데이터 기반 마케팅 솔루션 아이지에이웍스는 7월 미래에셋대우를 IPO 대표 주관사로 선정, 코스닥 입성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5. 부동산/임대

부동산(Property)과 기술(Tech) 합성어 프롭테크가 핫키워드로 떠오른 해였던 만큼 2018년(7건, 527억 원)에 비하면 투자 건수(27건)와 금액(3,275억 원)이 4~6배 가량 성장했다. 그 가운데서도 부동산 중개 서비스 기업 3곳은 총 1,850억 원 투자를 유치하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특히 직방은 2018년 아파트 실거래가 정보 서비스 호갱노노를 인수한 데 이어 2019년 1,600억 원을 유치했다. 이어 4월 셰어하우스 스타트

업 우주, 7월 상업용 부동산 매물 정보 서비스 네모를 운영하는 슈가힐을 차례로 인수하며 프롭테크 어벤저스 결성을 알리기도 했다.

공유오피스, 공유주방, 코리빙을 비롯한 공유 부동산 시장(10건)에도 많은 투자가 이어졌다. 2018년 200억 원대 투자를 유치한 패스트파이브는 2019년 390억 원 투자를 유치하며 기업 부동산 시장 공략 계획을 전했다. 마찬가지로 전년 200억 원을 유치한 스파크플러스는 300억 원 투자 유치를 통해 부동산 종합 운영사로 진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두 차례에 걸쳐 113억 원을 끌어온 고스트키친과 위대한상사(23억 원), 오픈더테이블(13억 원)은 공유주방 사업으로 시리즈A~B 단계 투자를 유치했고 로컬스티치(20억 원), 만인의꿈(10억 원) 등 밀레니얼 세대를 겨냥한 코리빙, 셰어하우스도 프리시리즈A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6. 교통/차량 서비스

부동산/임대와 마찬가지로 모빌리티 역시 뜨거운 키워드는 공유였다. 공유 마이크로 모빌리티, 차량 렌트 서비스가 인기를 끌면서 렌터카 예약 앱 카플렛(1,996억 원), 쏘카(500억 원)가 차례로 투자 유치금액 상위권에 올랐다. 마이크로 모빌리티 공유 서비스로 두 차례에 걸쳐 100억 원을 유치한 쌍쌍 운영사 피유 엠피부터 고고씽 운영사 매스아시아, 전기자전거 공유 플랫폼 일레클 운영사 나인투원까지 초기 단계지만 투자는 활발했다.

기업간 인수, 투자도 돋보인다. 카플렛은 1,996억 원 투자를 유치하며 주차장 통합 관리 스타트업 하이파킹을 인수했다. 고고씽 운영사 매스아시아는 전동 킥보드 공유 서비스 알파카를 8월 인수했다. 쏘카는 전기자전거 공유 플랫폼 일레클 운영사 나인투원, 세차 서비스 차케어에 투자했다.

테슬라, 현대차 등 국내외 완성차 기업이 자율주행차 개발 속도를 올리면서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는 스타트업도 속속 초기단계 투자를 끌어왔다. 자율주행 TaaS 개발사 코드42가 3회에 걸쳐 총 370억 원을 유치했고 자율주행 레이더 기술 개발사 스마트레이더시스템과 비트센싱은 각각 48억 원, 10억 원 시리즈A 투자를 끌어왔다.

7. 블록체인

모두 45건 투자가 진행되며 전체 분야 가운데 5번째로 많은 투자 건수를 기록했다. 투자 유치에 성공한 블록체인 스타트업은 게임, 교육, 금융, 반려동물, 보안, 의료 분야와 결합한 서비스를 선보인 곳들이다. 2018년 하반기에는 시장 침체로 투자가 줄어드는 추세였지만 2019년은 비교적 꾸준하게 투자가 이어졌다. 2018년 국내외 크립토펙트와 거래소로부터 360억 원을 유치한 블록체인 결제 플랫폼 테라가 대표적이다. 테라는 2019년 4월에 걸쳐 카카오벤처스, 싱가포르 룬엑스벤처스, 미국 윌리시스코피탈, 홍콩 해시캐피탈로부터 투자를 유치했다. 가장 많은 투자가 이뤄진 세부 분야는 45건 중 15건을 유치한 금융 분야로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도 여기 해당한다. 그 뒤는 브라우저, 탈중앙화 플랫폼 구축을 비롯한 인프라 분야(7건)가 이었다.

벤처스퀘어가 제공하는 위치 기반 스타트업 정보 확인 서비스 스타트업 지리지와 투자 데이터에 따르면 2019년 100억 원 이상 투자 유치 기업 78곳 중 65곳이 서울에 편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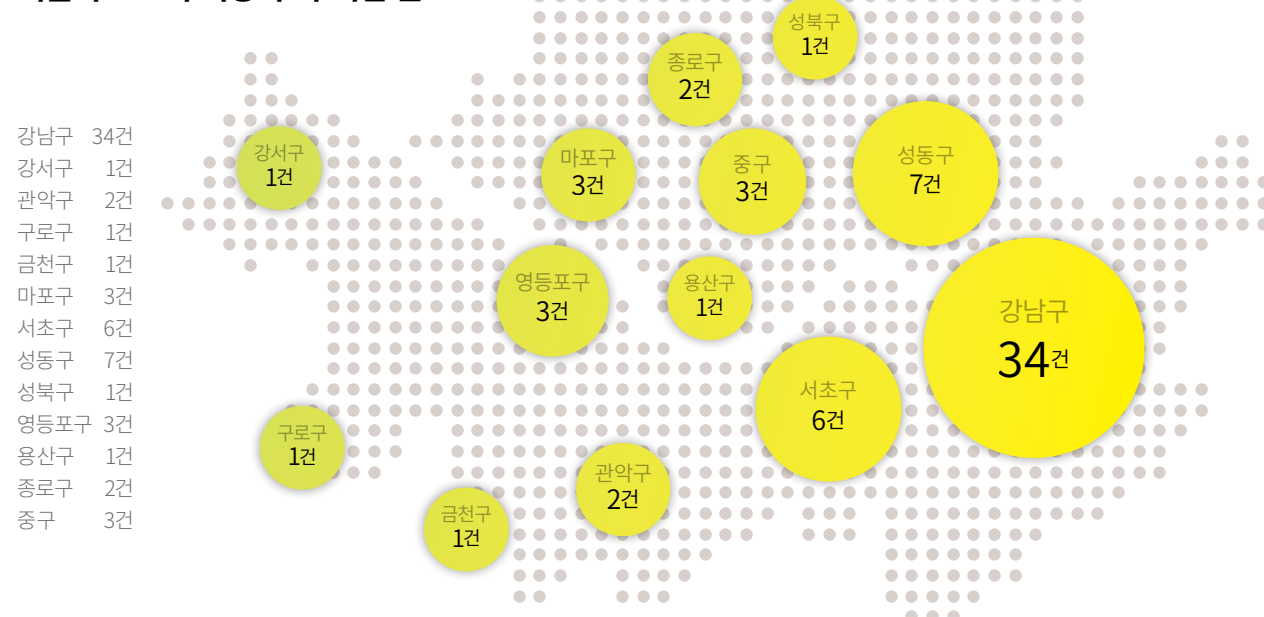
위메프, 야놀자, 무신사, 컬리 등을 포함한 65곳 중 34곳이 강남구에 모여 있었다. 강남구와 근접한 서초구에도 카플렛, 마이리얼트립 등 6곳이 자리를 잡았다. 강남구와 서초구를 아우르는 강남권을 선호하는 이유는 단연 업무 효율성이다. 주요 투자사와 관계자, 코워킹 공간 등 업무 편의시설이 밀집해 있어 미팅이나 협업이 편리한 것은 물론 불필요한 이동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성수동 일대 소셜벤처 밸리에서도 쏘카, 알스퀘어, 브랜드엑스코퍼레이션, 메디포럼 등 7개 기업이 100억 이상 투자를 유치했다. 이들 기업은 비단 소셜벤처뿐 아니라 모빌리티, 부동산, 바이오 등 다양한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뱅크샐러드 운영사 레이니스트, 어니스트펀드는 금융권이 밀집한 여의도 일대에 자리 잡았다. 와그트래블과 와이낫미디어, 아이지에이웍스는 마포구에 동지를 텄다. 여행 스타트업 와그트래블은 잦은 해외 일정을 고려해 공항철도가 위치한 상암에 자리를 잡았다는 설명이다.

헬스케어/바이오 스타트업 고바이오랩과 스파크바이오파마는 관악구에 위치했다. 고바이오랩은 서울대 R&D 기반 스타트업으로 연구 인력풀이 풍부한 서울대 내에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이밖에도 100억 이상 투자를 유치한 스타트업은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성북구, 용산구에 각 한 곳씩 분포했다.

서울 외 지역에서 대규모 투자를 유치한 곳은 13곳뿐이다. 이 중 와디즈, 마인즈랩, 로알크로우가 판교 일대에 자리 잡고 있다. 광역시에서 100억 이상 투자를 유치한 곳은 대전시 한 곳이다. 헬스케어/바이오 기업 오름테라퓨틱은 대전시 유성구에 동지를 텄다. 대전시 유성구는 카이스트를 비롯해 이공계 연구 인력과 대기업 연구단지가 밀집한 지역이다. 제주시에서는 제조 기반 스타트업인 모노리스가 100억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서울시 100억 이상 투자 기업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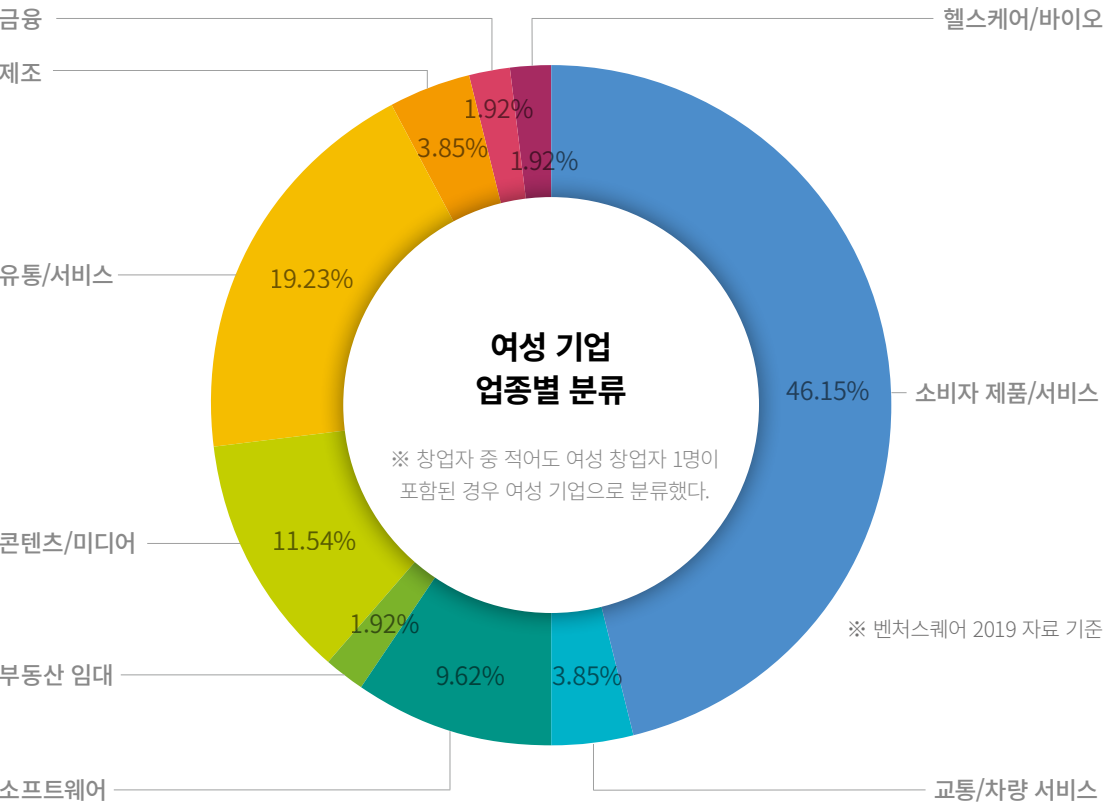


2019년 한 해 투자를 유치한 여성 기업은 52개다. 2018년 33개 여성 기업이 투자를 유치한 데 비하면 50% 이상 늘었다. 52개 기업은 2019년 모두 62건 투자를 유치, 총 3,038억 7,000만 원을 조달하며 2018년 누적 투자금(1,418억 5,000만 원) 2배를 훌쩍 넘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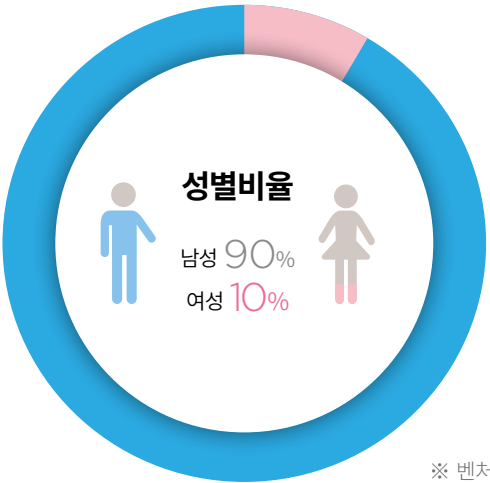
2019년 전체 투자건수 가운데 여성 기업 투자는 10%를 차지했다. 금액은 7.7% 가량이다. 2018년 여성 기업 투자 건수가 전체의 8%, 금액은 2%를 차지한 점을 감안하면 전체 대비 여성 기업이 유치한 투자금이 크게 늘었다는 걸 알 수 있다. 여성 기업 가운데 46.2%는 소비자 제품/서비스, 19.2%는 유통/서비스 분야이며 소비자 제품/서비스에서도 푸드와 펫테크 분야가 두드러졌다.

투자금액 기준으로는마켓컬리를 운영하는 컬리(1,350억 원)가 1위였다. 컬리는 새벽배송 선두주자란 타이틀을 앞세워 2018년과 마찬가지로 여성 기업 가운데 가장 많은 투자금을 유치했으며 전년(670억 원)과 비교하면 2배 넘는 투자금을 두 차례에 걸쳐 유치했다. 컬리는 새벽배송 시장 경쟁자 유입, 잦은 품질 이슈가 지적됐지만 배달 포장재 전면 교체를 비롯한 친환경 배송과 물류센터 확대를 통한 차별화, 배송권역 확장을 통해 성장세를 이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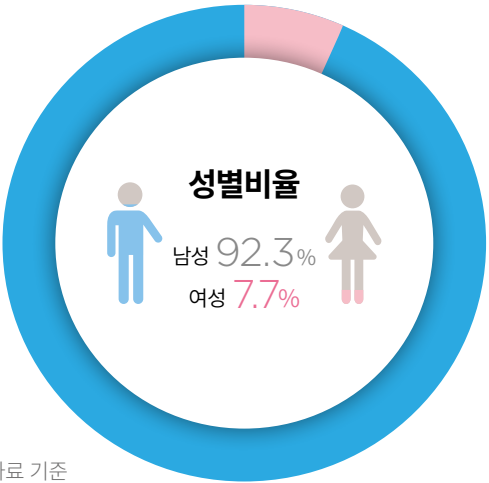
그밖에 자유여행 플랫폼 트리플(300억 원), AI 스타트업 마이셀럽스(150억 원), 온라인 취미 클래스 플랫폼 클래스101(120억 원), 온디맨드 매칭 컴퍼니빌더 마켓디자이너스(104억 원) 역시 높은 금액을 끌어왔다. 단계별로는 시드 투자가 18건으로 투자 건수 기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시리즈C, 시리즈D 투자 유치는 각각 2건, 총 1,600억 원을 기록하며 여성 스타트업 투자금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여성 기업 투자 건수 비율



여성 기업 투자 금액 비율



※ 벤처스퀘어 2019 자료 기준

여성 기업 투자 금액

(단위 : 억 원)

기업명	투자 금액	기업명	투자 금액	기업명	투자 금액
컬리	1,350	자란다	31	잘노는	5
트리플	300	맘편한세상	30	재주상회	3
마이셀럽스	150	크리에이티브	30	더패피	
클래스101	120	패브릭타임	21	딜리버리T	
마켓디자이너스	104	아트앤디자인인터내셔널	20	매스아시아	
모노리스	100	플래너리	20	바벨탑	
생활연구소	100	단색	19	빅펄	
아파트먼트리	100	오픈더테이블	13	세이브앤코	
스팟라이틀리	72	해피문데이	12	오브젝티브	
아드리엘	50	클라썸	11	컨트롤클로더	
지구인컴퍼니	45	닥터다이어리	9	트레이지	
핀다	45	잼페이스	8	펫트너	
더클로젯컴퍼니	44	라이트브라더스	6	펫피플	
다노	40	뉴닉	6	매치	
오늘회	40	심플리오	6	화난사람들	
블루스페이스	40	소보로	5	해피업	
퍼블리	38	애드히어로	5		
그립	35	잇마플	5		

※ 벤처스퀘어 2019 자료 기준

2019년 스타트업계를 들쭉이게 한 우아한형제들과 요기요 모회사 딜리버리히어로 빅딜을 비롯해 총 38건 인수합병이 진행됐다. 우아한형제들은 기업가치 4조 7,500억 원을 인정받으며 글로벌 1위 배달업체 딜리버리히어로와 한 식구가 됐다. 이번 인수합병 건은 국내 인터넷 기업 거래 가운데 가장 큰 규모다. 국내 1세대 유니콘이자 우아한형제들 수장인 김봉진 대표는 딜리버리 히어로와 손잡고 아시아 배달앱 시장 공략에 나설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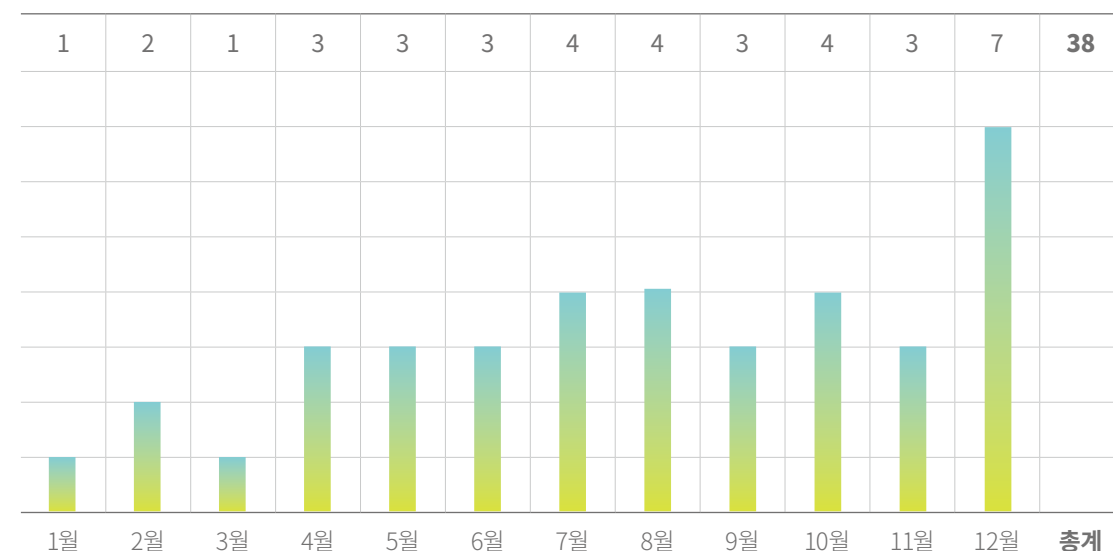
수아랩과 위드이노베이션, 해브앤비도 해외 기업과 인수합병을 마쳤다. 글로벌 뷰티 그룹 에스티로더는 닥터자르트를 1조3,000억 원대에 인수했다. AI 기반 무인 검사 솔루션 개발사 수아랩은 미국 나스닥 상장사 코그넥스에 2,300억 원에 매각됐다. 국내 인공지능 스타트업이 해외 기업에 인수된 최초 사례다. 수아랩은 인수 계약 이후 코그넥스에 합류해 머신비전 전문 딥러닝 연구를 수행하게 됐다.

여기어때 운영사 위드이노베이션은 외국계 사모펀드 CVC캐피탈이 3,000억 원에 인수했다. 심명섭 전 위드이노베이션 대표의 웹하드 논란이후 내용을 겪던 위드이노베이션은 지마켓 출신 최문석 신임 대표를 선임하고 내부 재정비에 나섰다. 1,000만 가입자를 확보한 중고거래 플랫폼 번개장터는 국내 사모펀드 프렉시스캐피탈에 매각됐다. 인수가는 1,200억 원이다.

대기업과 스타트업간 인수합병도 이어졌다. 카카오페이는 인슈어테크 스타트업 인바이유를 품에 안으며 보험업 진출을 위한 토대를 다졌다. 스타트업이 중소, 대기업 부서를 인수한 경우도 있었다. 토스 운영사 비바리퍼블리카는 LG유플러스 전자결제사업부를 3,650억 원에 인수했다. 로지스팟은 20년 업력 종합운송사 성현티엘에스를 인수하며 운송시장 디지털화를 가속화했다.

2019년에도 성장기 스타트업간 인수가 활발했다. 직방은 세어하우스 운영사 우주와 상업용 부동산 정보 서비스 네모를 운영하는 슈가힐을 인수하며 빅데이터 기반 프롭테크 기업으로 덩치를 키웠다. 직방은

2019년 월별 인수합병 건수



※ 벤처스퀘어 2019 자료 기준

2018년 인수한 아파트 실거래가 확인 서비스 호갱노노와 2019년 한 배를 탄 우주, 슈가힐과 함께 부동산 산업 혁신을 이룰 것이라고 밝혔다.

쏘카는 차량관리 업체 차케어를 인수하며 미래 모빌리티 서비스 확장에 나섰다. 쏘카가 투자한 전기자전거 공유 스타트업 나인투원은 하드웨어 스타트업 바이시큐와 한 식구가 됐다. 번개장터는 프렉시스캐피탈에 매각되기에 앞서 빅데이터 전문 스타트업 부스트와 합병한 바 있다. 이밖에도 플랫폼, 리디, 마도로스, 매스아시아, 오드엠, 원모먼트 등이 동일 업종 스타트업을 인수하며 성장세를 가속화했다. 여성기업 인수합병 건은 히든트랙에 인수된 베베템과 전동킥보드 업체 알파카를 인수한 매스아시아 총 2건이다.

2018년에 이어 2019년 가장 많은 기업을 인수한 스타트업은 야놀자다. 가람정보시스템, 씨리얼, 우리펜션, 이지테크노시스, 데일리호텔 총 5곳을 인수했다. 이 중 객실관리시스템(PMS)기업은 가람정보시스템, 씨리얼, 이지테크노시스 3곳이다. 여가플랫폼에서 나아가 글로벌 호스피탈리티테크 기업으로 진화하겠다는 야놀자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인수합병 기업 리스트

기업명	피인수	기업명	피인수
아이오엔코리아	쓰리온	한국M&A거래소	재능아지트
야놀자	씨리얼	번개장터	부스트
야놀자	가람정보시스템	CVC캐피탈	위드이노베이션
데일리블록체인	케어랩스	야놀자	데일리호텔
히든트랙	베베템	야놀자	이지 테크노시스
TS인베스트먼트	뉴패러다임인베스트먼트	플랫폼	하이파킹
직방	우주	코그넥스	수아랩
아몬드	열배달	슈퍼알키재단	프렌즈엔터테인먼트
오드엠	위드공감	OGQ	리슨소프트
리디	라프텔	셀리턴	스페클립스
야놀자	우리펜션	섬머인터네셔널	도그러브코코
쏘카	차케어	에스티로더	닥터자르트(해브앤비)
마도로스/에프	아일랜드에프	원모먼트	봄담다
로지스팟	성현티엘에스	카카오키즈	야나두
직방	슈가힐	나인투원	바이시큐
백패커	페이브	위버스마인드	스터디맥스
카카오페이	인바이유	딜리버리히어로	우아한형제들
매스아시아	알파카	프렉시스캐피탈	번개장터
핸드허그	와프스	토스	LG유플러스전자결제사업부

※ 벤처스퀘어 2019 자료 기준

1,000억 원 이상 메가라운드 투자에 성공한 스타트업은 모두 7곳이다. 투자 유치 금액은 1조 3,697억 원으로 전체 투자액 34%를 차지한다. 전반적으로 메가라운드 투자 유치 기업은 2곳 늘었지만 금액은 2018년 3조 1,510억 대에서 절반 가량 줄었다. 2018년에는 쿠팡이 2조 원대 투자를 유치하며 메가라운드 덩치를 키웠기 때문이다. 2019년 메가라운드에서 가장 많은 투자금을 유치한 곳은 위메프다. 위메프는 하반기에만 총 4,700억 원 규모 투자를 유치하며 이커머스 업계 주도권 경쟁에 나섰다.

2018년 유니콘 지위를 공식화한 비바리퍼블리카는 2019년 8월 770억 원 규모 투자에서 기업가치 2조 7,000억 원을 인정받으며 유니콘 지위를 재확인했다. 또 제3인터넷 은행 설립을 추진하며 전환기를 맞이하기도 했다. 5월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 인가 심사에서 한 차례 고배를 마신 토스뱅크는 12월 금융위원회로부터 은행업 예비인가 승인을 받으며 또 한 번 국내 핀테크 스타트업 새 역사를 썼다.

2019년은 어느 때보다 유니콘 탄생 소식이 자주 들려오던 한 해였다. 야놀자는 2,130억 원 투자금을 유치하며 유니콘 지위를 공식화했다. 무신사 역시 기업가치 2조 원을 인정받으며 10번째 유니콘이 됐다. 12월 200억 원 투자 소식을 알린 에이프로젠은 11번째 유니콘으로 등극했다. 에이프로젠은 생명공학 분야 첫 유니콘이라는 점에서 화제를 모았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미국(210), 중국(102), 영국(22), 인도(18)에 이어 독일(11)과 함께 전세계 유니콘 기업 순위 5위에 자리매김했다.

2020년에도 유니콘이 등장할 것이라는 게 업계 전망이다. 2019년 메가라운드 투자를 유치한 직방과 컬리도 유력한 차기 유니콘 후보로 언급된다. 정부 차원에서도 유니콘 스타트업 성장에 힘을 쏟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기술보증기금이 2019년부터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예비 유니콘 기업을 선정하고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펼치고 있다. 상하반기 예비 유니콘으로 선정된 기업은 리디, 컬리, 와디즈, 블랭크코퍼레이션, 왓차, 레이니스트, 마이리얼트립, 루이드, 바로고, 스마트스터디, 스타일쉐어, 원티드 등 27개 기업이다.

유니콘 등극 기업명 및 등재 시기

순번	등재시점	기업명	가치평가	창업연도
1호	2014년 5월	쿠팡	90억 달러	2013
2호	2014년 11월	엘로모바일	40억 달러	2012
3호	2017년 4월	L&P 코스메틱	17.8억 달러	2009
4호	2018년 8월	크래프톤	50억 달러	2007
5·6호	2018년 12월	비바리퍼블리카	22억 달러	2013
		우아한 형제들	26억 달러	2011
7호	2019년 2월	야놀자	10억 달러	2007
8호	2019년 4월	위메프	26.5억 달러	2010
9호	2019년 6월	지피클럽	13.2억 달러	2003
10호	2019년 11월	무신사	18.9억 달러	2012
11호	2019년 12월	에이프로젠	10.4억 달러	2000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메가 라운드 투자 유치 기업 TOP7

(단위 : 억 원)

1	위메프	유통/서비스	4,700	넥슨코리아, IMM인베스트먼트
2	야놀자	소비자 제품/서비스	2,130	싱가포르투자청, 부킹홀딩스
3	무신사	유통/서비스	2,000	세쿼이아캐피탈
4	카플렛	교통/차량 서비스	1,996	휴맥스, PEF스틱인베스트먼트 등
5	직방	부동산/임대	1,600	골드만삭스PIA, 알토스벤처스, 스톤브릿지캐피탈, DS자산운용, 유안타인베스트먼트
6	컬리	유통/서비스	1,350	세마트랜스링크 인베스트먼트, 한국투자파트너스, 세콰이어 차이나
7	센드버드	소프트웨어	1,171	와이콤비네이터, 펀더스클럽, 어거스트캐피탈, 아이코닉캐피탈, 샤스타벤처스, 타이거글로벌매니지먼트

※ 벤처스퀘어 2019 자료 기준

상위 20개 기업 투자 유치금액은 2조 1,327억 원으로 전체 투자 유치 금액 중 54%를 차지한다. TOP20에 가장 많은 기업이 속한 분야는 위메프를 필두로 한 유통/서비스(6곳)였다. 이 중 물류플랫폼 큐익스프레스를 제외하면 나머지 5곳은 모두 이커머스 플랫폼이다. 2018년에 이어 연속으로 투자 유치액 TOP20에 오른 곳은 비바리퍼블리카, 컬리, 쏘카, 야놀자다.

교통/차량 서비스, 금융, 소비자 제품/서비스 분야 스타트업 각 3곳이 TOP20에 포함됐다. 2018년에 이어 2019년도 대규모 투자 유치에 성공한 쏘카와 함께 카플렛, 코드42가 새롭게 순위권에 진입했다. 카플렛은 2019년 한 해 1,996억 규모 시리즈C 투자를 마무리했다. 누적 투자 유치금액은 2,051억 원으로 국내 모빌리티 업계에서 가장 많은 투자금을 확보했다. 코드42는 한 해 동안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SK, LG, CJ 등 국내 대기업으로부터 3회 투자를 유치하며 이목을 끌었다.

금융 분야에서는 2년 연속 투자 유치액 TOP20에 포함된 토스 운영사 비바리퍼블리카와 레이니스트, 피플펀드가 순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금융과 비금융 산업 데이터 이중 결합, 마이데이터 기반 맞춤형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면서 핀테크 산업에 대한 기대가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프롭테크에도 2019년 대규모 투자금이 흘러들어갔다. 직방은 2015년 12월 이후 3년 반 만에 국내 프롭테크 스타트업 사상 최대 규모인 1,600억 원을 확보했다. 종합 부동산 서비스 회사로 진화를 발표한 패스트파이브도 390억 원 투자를 유치하며 프롭테크 스타트업에 대한 관심을 이어나갔다.

소비자 제품/서비스 분야에서 야놀자, 마이쿤, 미미박스는 각각 외국계 벤처캐피털로부터 투자를 유치했다. 이들 기업은 모두 국내를 넘어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고 있다. 야놀자는 싱가포르투자청과 부킹홀딩스로

부터 2,130억 원을 유치하며 글로벌 여가플랫폼에서 호스피탈리티 기업으로 진화를 예고했다. 스폰라디오 운영사 마이쿤은 12월 450억 원 투자를 유치했다. 기존 투자자인 실리콘밸리 기반 벤처캐피털 굿워터캐피탈과 알토스벤처스가 참여했으며 IMM인베스트먼트, 네이버, SBI인베스트먼트 등 국내 유수 투자사도 신규 투자사로 이름을 올렸다. 존슨앤드존슨 계열 벤처캐피탈 JJDC로부터 395억 원을 투자받은 미미박스 또한 포메이션그룹, 굿워터캐피탈, 알토스벤처스를 주요 투자자로 두고 있다.

2019년 투자 금액 TOP20엔 헬스케어/바이오 분야 스타트업 2곳이 새로 진입했다. 그 중 미국 뉴욕에 본사를 둔 헬스케어 스타트업 늬은 기관 투자자뿐 아니라 왓츠앱 공동 창업자 안 쿼, 도어대시 공동 창업자 도어대시, 오스카 헬스 공동창업자 조쉬 쿠슈너, 테니스 스타 세레나 윌리엄스를 비롯해 저명한 창업자를 투자자로 유치하며 화제를 모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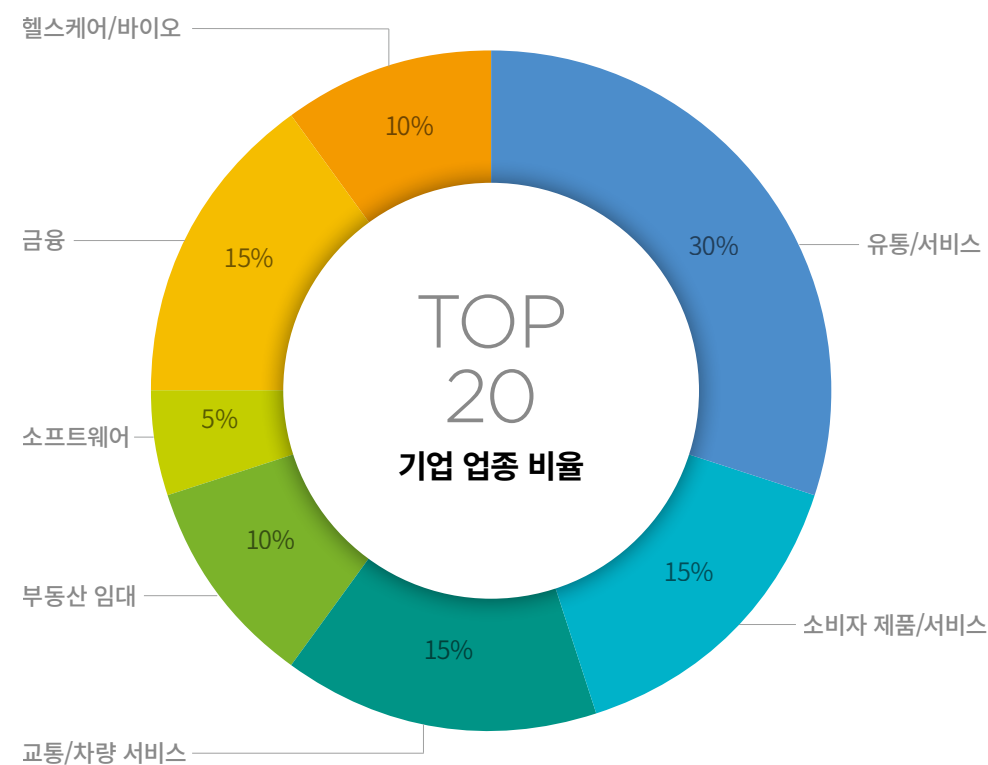
반면 게임, 제조, 콘텐츠/미디어, 블록체인 스타트업은 한 곳도 TOP20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게임 분야는 2018년 TOP20에 4곳이 올랐지만 2019년에는 투자 건수도 가장 적을 만큼 투자 소식이 뜸했다.

TOP 20 기업 리스트

(단위: 억 원)

기업명	분야	투자액
위메프	유통/서비스	4,700
야놀자	소비자 제품/서비스	2,130
무신사	유통/서비스	2,000
카플렛	교통/차량 서비스	1,996
직방	부동산/임대	1,600
컬리	유통/서비스	1,350
센드버드	소프트웨어	1,171
비바리퍼블리카	금융	770
늬	헬스케어/바이오	675
큐익스프레스	유통/서비스	600
레이니스트	금융	550
쏘카	교통/차량 서비스	500
티켓몬스터	유통/서비스	500
마이쿤	소비자 제품/서비스	450
당근마켓	유통/서비스	400
바이오노트	헬스케어/바이오	400
미미박스	소비자 제품/서비스	395
패스트파이브	부동산/임대	390
피플펀드	금융	380
코드42	교통/차량 서비스	370

※ 벤처스퀘어 2019 자료 기준



※ 벤처스퀘어 2019 자료 기준

한편 2019년 2회 이상 투자를 유치한 기업은 73곳이다. TOP20 기업 가운데 2019년 복수 투자 유치에 성공한 기업은 위메프, 컬리, 샌드버드, 늑, 레이니스트, 코드42 총 6곳이다. 최다 투자 유치 기업은 2019년 한 해 5차례 투자를 유치한 글로랑이다. 팜테크 기업 단색은 시드, 프리시리즈, 팁스 등 총 4차례에 걸쳐 기관, 단계별 투자를 고루 유치했다.

2회 이상 투자 유치에 성공한 기업이 가장 많은 분야는 소비자 제품/서비스와 소프트웨어로 각각 15곳이 여기 해당했다. 블록체인과 유통/서비스는 각각 9곳이 2회 이상 투자를 유치하며 그 뒤를 이었다. 중복 투자로 가장 많은 금액을 유치한 분야는 유통/서비스(6,211억 원)로 2위인 소프트웨어(약 1,618억 원)를 4배 가까이 앞질렀다. 게임과 제조 스타트업 가운데서는 이번에도 2회 이상 투자를 유치한 곳이 한 곳도 없었다.

중복 투자 유치 기업 리스트 (단위 : 억 원)

기업명	투자유치수	투자액	기업명	투자유치수	투자액
위메프	2	4,700	뉴라메디	2	31
컬리	2	1,350	플랫폼스	2	30
샌드버드	2	1,171	헤링스	2	30
늑	2	675	헬로팩토리	2	27
레이니스트	2	550	위즈스쿨	2	26
코드42	3	370	미로	2	20
샌드박스네트워크	2	310	집토스	2	20
고바이오텍	2	306	단색	4	19
밸런스하이로	2	260	버핏서울	2	15
고스트키친	2	113	비바이노베이션	2	13
테라폼랩스	4	113	무스마	2	11
더화이트커뮤니케이션	2	100	컨텍	3	10
생활연구소	2	100	원키	2	10
피유엠피	2	100	마카롱팩토리	2	10
델리오	2	80	더맘마	2	10
시큐레터	2	80	모바일통	2	8
프렌트립	2	76	고투조이	2	8
트렌비	3	70	씨브이티	2	7
머니브레인	2	70	나이비	2	7
KST모빌리티	2	60	글로랑	5	6
클로봇	2	55	더코퍼레이션	2	6
지구인컴퍼니	2	45	고미코퍼레이션	3	6
푸른밤	2	45	콜라보그라운드	3	5
빌릭스	2	45	부루구루	2	5
파이랩테크놀로지	2	40	큐레잇	2	5
마켓보로	2	40	블루프린트랩	2	5
위편	2	35	바이앤어스	2	3

※ 벤처스퀘어 2019 자료 기준

2019년 주요 투자사 - 엔젤/시드 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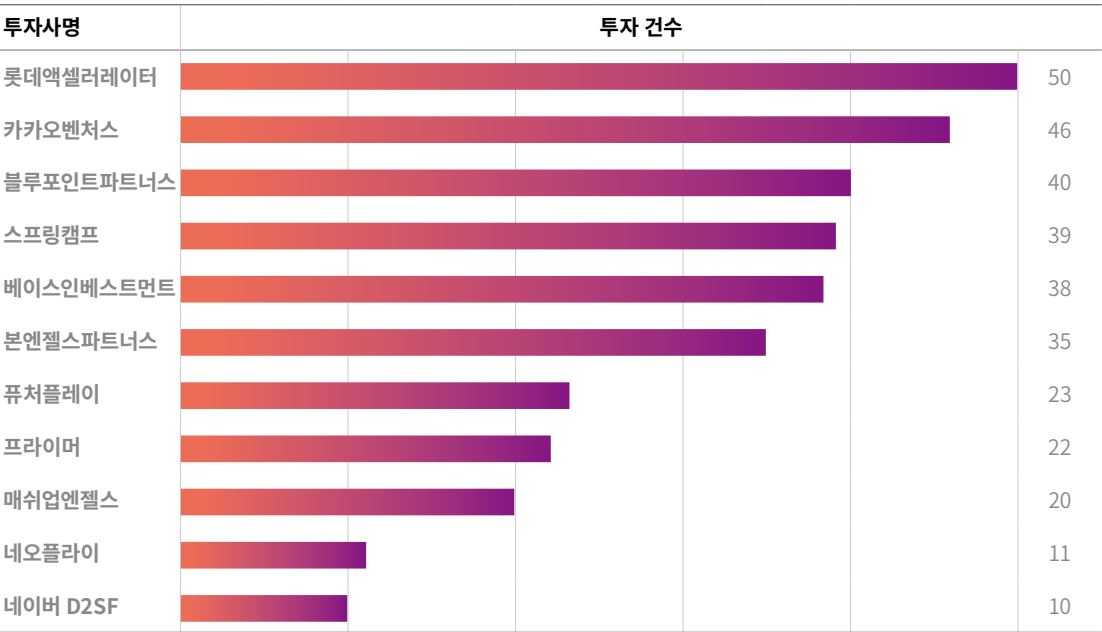
기업형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벤처캐피털 활동이 눈에 띈 한 해였다. 선배 창업가가 설립한 벤처캐피털도 초기 스타트업에 힘을 실어주는 양상이 이어졌다. 이들 액셀러레이터·벤처캐피털은 초기 스타트업 투자뿐 아니라 후속 투자에도 참여하며 스타트업 성장 주춧돌이 됐다.

2019년 가장 많은 초기 투자를 진행한 곳 가운데 하나인 롯데액셀러레이터는 레이틀리코리아, 클로봇, 스토어카메라, 미로, 케어닥 등 50여 곳에 자금을 투입했다. 2018년 28곳 스타트업에 투자했던 것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초기 투자를 늘렸다. 2018년 대비 펀드 조성 건이 증가한데다 심사 인원 충원 등 대내외적으로 초기 스타트업 투자 환경을 정비했기 때문이라는 게 롯데액셀러레이터측 설명이다. 2019년에는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와 액셀레이팅 프로그램 엘캠프 1기를 모집하며 부산 지역 스타트업에 투자하기도 했다.

카카오벤처스도 46개 스타트업에 신규 및 후속 투자를 포함해 408억 원 규모 투자를 마쳤다. 카카오벤처스 역시 2018년 대비 투자 건수가 19건 늘었다. 2019년에는 52시간 제도와 워라밸 추구에 따른 유휴시간을 겨냥하는 서비스에 대한 신규 투자를 확대했다. 챗소셜 플랫폼 채티, 그룹운동 플랫폼 버핏서울 등이 대표적이다. 2018년과 마찬가지로 AR과 자율주행도 주요 화두였다. 2018년과 2019년 투자를 이어온 AR렌즈 개발사 레티널이 대표적이다. 자율주행 부문에서는 마스오토, 4D이미지레이더 개발사 스마트레이더시스템 등이 카카오벤처스 포트폴리오사로 이름을 올렸다.

기술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 블루포인트파트너스는 더브이씨, 리걸텍, 버닝브로스 등 40곳에 투자했다. 2018년 33건에 비해 증가한 수치다. 네이버 계열 벤처캐피털 스프링캠프 역시 여행 후기 플랫폼 유디니, 주류 멤버십 데일리샷을 포함해 총 39건 투자를 진행했다. 스프링캠프는 클래스101, 핏핏, 해피문데이 등 시리즈A 이상 투자에도 참여했다.

주요 엔젤/시드 단계 투자사 (단위 : 건수)



※기관이 직접 제공한 2019년 투자 건수

베이스인베스트먼트는 286억 원 규모 사모펀드를 조성하고 초기 스타트업에 투자를 진행했다. 2019년에는 메이크업브랜드 힌스, 식자재 플랫폼 마켓보로 등 38곳에 투자했다. 규모는 160억이다. 이 중 113억 원은 신규 기업에 대한 첫 투자였다. 시드 라운드로 7곳에 19억, 프리시리즈A 16개 기업에 80억 원을 투입했다.

매쉬업엔젤스는 공동 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 환자 회복 관리 플랫폼 에포터, 원데이클래스 플랫폼 솜씨당을 비롯해 총 20개 스타트업에 투자했다. 매쉬업엔젤스 역시 2018년 14건 대비 투자 건수가 늘었다. 특별히 투자 수를 정해 놓지는 않지만 2019년에는 유난히 좋은 팀이 많아 적극적으로 투자를 했다는 게 매쉬업엔젤스측 설명이다. 2019년 2월에 형성한 총 77억 규모 개인투자조합 2호 결성도 활발한 투자 요인으로 작용했다. 게임 개발사에도 투자를 진행했다. 2018년 게임 퍼블리셔 나인탭에 이어 2019년에는 게임 개발사 위드어스게임즈가 매쉬업엔젤스 포트폴리오사가 됐다.

2019년 주요 국내 투자사(VC) - 시리즈A 이상

2019년 가장 많은 투자 금액과 투자 건수를 기록한 벤처캐피털은 한국벤처투자다. 한국벤처투자는 어반플레이, 플링크 등 88개 기업에 2,426억 원 이상 투자를 진행했다.

투자 금액 기준, 두 번째로 많은 금액을 투입한 곳은 소프트뱅크벤처스다. 소프트뱅크벤처스의 2019년 투자액은 2,266억 원으로 2018년과 마찬가지로 국내에서 두 번째로 많은 투자금을 투입한 벤처캐피털로 이름을 올렸다. 소프트뱅크벤처스가 2019년 투자한 주요 기업은 쏘카, 바이오노트, 알스케어, 수아랩, 클래스101, 의식주컴퍼니, 트레바리 등이다.

2019년 세 번째로 많은 투자금을 투입한 KB인베스트먼트는 레이니스트 외에도 쏘카, 피플펀드, 트리플, 테라핀테크를 비롯한 58곳에 1,695억 원 투자를 집행했다. 인터베스트는 바이오노트, 오름테라퓨틱, 스파

크플러스, 수아랩 등에 1,372억 원을,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는 와디즈, 트리플, 마이리얼트립, 딜리셔스 등 40곳에 1,219억 원을 투자했다. IMM인베스트먼트는 위메프, 티켓몬스터, 피플펀드 등 굵직한 투자 건에 참여했다. 2019년 투자금은 2018년 대비 약 258억 원 늘었다.

스톤브릿지벤처스와 바이오 헬스케어 전문 벤처캐피털 데일리파트너스는 2019년 투자금 기준 상위 목록에 새롭게 이름을 올렸다. 스톤브릿지벤처스는 직방, 쏘카, 레이니스트 등 예비 유니콘 기업을 비롯한 23곳에 715억 원을 수혈했다. 2018년 설립한 데일리파트너스는 2019년 2,000억 원 규모 운용자산을 확보하고 엠디윤, 휴이노 등에 투자사로 참여했다.

국의 투자사가 2019년 한해 국내 스타트업에 집행한 투자는 129건으로 집계됐다. 그 중 절반이 넘는 71건은 미국 투자사가 진행했으며 이 가운데서도 실리콘밸리에 소재한 알토스벤처스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알토스벤처스는 앞서 우아한형제들, 비바리퍼블리카, 타다에 투자한 바 있으며 2019년에는 쏘카, 당근마켓, 스포라디오 대규모 투자 건에 참여했다.

그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한 곳은 일본과 중국이다. 일본 투자사로는 소프트뱅크벤처스와 SBI인베스트먼트가 적지 않은 투자를 집행했다. 소프트뱅크벤처스는 미국 머신비전 기업 코그넥스에 10월 인수된 수아랩부터 클래스101, 쏘카, 당근마켓, 트레바리까지 8건에 걸쳐 총 373억 원을 투자했다. 마찬가지로 SBI인베스트먼트는 8건에 걸쳐 패스트파이브, 와그트래블, 테라핀테크, 발란 등 최근 몇 년새 주목 받는 국내 스타트업에 총 223억 원을 투자했다. 중국 주요 투자사로는 5월 컬리에 350억 원을 투자한 힐하우스캐피탈그룹, 아이즈프로토콜과 마인드SI에 투자한 블록체인 전문 투자사 퀘스트캐피탈이 이름을 올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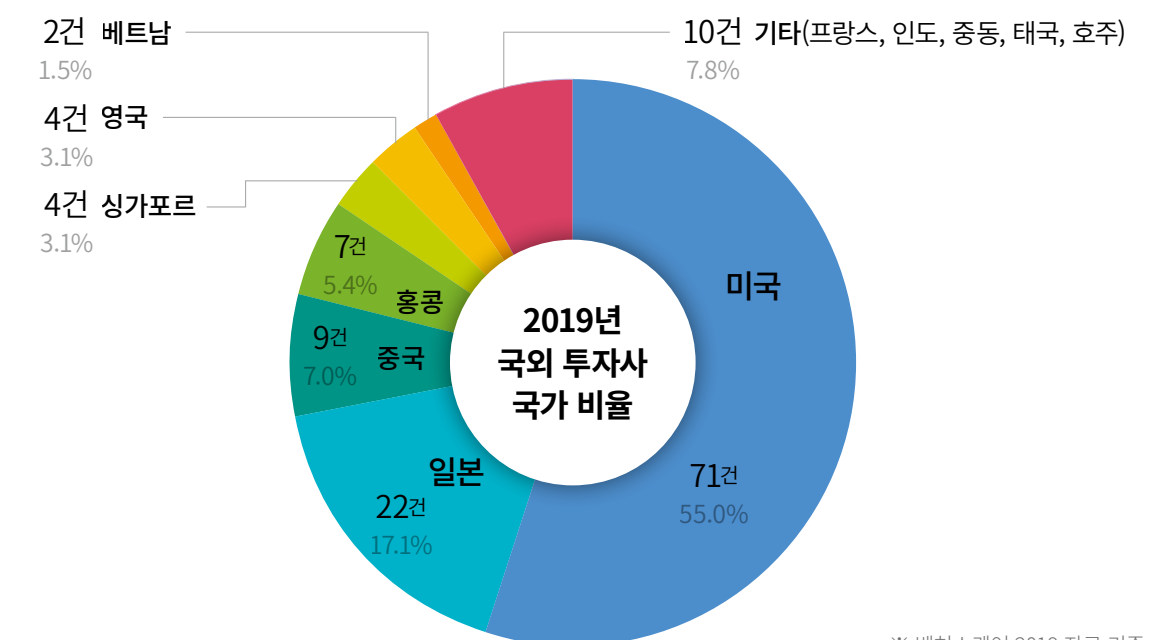
그밖에 싱가포르에서는 싱가포르투자청이 야놀자, 비바리퍼블리카에 각각 1,070억 원, 110억 원 대규모 투자를 집행했다. 홍콩 투자사로는 에스팩스매니지먼트, 씨엘에스에이캐피탈파트너스, 해시키캐피탈 등이 비바리퍼블리카, 피플펀드, 테라폼랩스와 같은 핀테크 스타트업에 주목했다.

시리즈A 이상 단계 투자사

(단위 : 억 원)

투자사명	투자 금액
한국투자파트너스	2,426
소프트뱅크벤처스	2,266
케이비인베스트먼트	1,695
인터베스트	1,372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	1,219
IMM인베스트먼트	1,019
KTB네트워크	997
에이티넘인베스트먼트	838
스톤브릿지벤처스	715
데일리파트너스	708

※ 국내 벤처투자사에 대한 투자 금액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전자공시 자료(2019년 11월 기준)를 참고했다.



※ 벤처스퀘어 2019 자료 기준

2019 스타트업 생태계 10대 뉴스

1 11개로 늘어난 토종 유니콘 벤처 천역 기업도 증가세

2019년에는 국내 유니콘 기업 수가 기존 6개에서 11개로 늘었다. 쿠팡과 크래프톤, 옐로모바일, 우아한형제들, 비바리퍼블리카, 엘앤피코스메틱 외에 2월 야놀자, 4월 위메프, 6월 지피클럽에 이어 11월 무신사, 12월 에이프로젠이 이름을 올린 것. 당시 중소벤처기업부 발표에 따르면 국가별 유니콘 기업 순위도 미국 210개, 중국 102개, 영국 22개, 인도 18개에 이어 우리나라는 독일과 공동 5위에 이름을 올렸다. 2018년 중반까지만 해도 국내 유니콘 기업 수가 단 2개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약적인 증가인 건 분명하다. 또 하이퍼커넥트와 직방, 에스티유니타스, 베스핀글로벌, 쏘카, 샌드버드, 컬리 같은 기업이 차기 유니콘을 노리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스케일업 투자가 가능한 운용자산 기준 상위 24개 벤처캐피털로 이뤄진 유니콘 도약 서포터즈를 꾸리는 한편 2019년 기술보증기금과 예비유니콘 특별보증제도를 신설해 100억 원까지 지원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예비유니콘 특별보증제도는 상반기 13곳(리디, 컬리, 와디즈, 블랭크코퍼레이션, 디에스글로벌, 마이뮤직테이스트, 피피비스튜디오스, 하나기술, 네오랩컨버전스, 달콤소프트, 왓차, 힐세리온, 메쉬코리아), 하반기 14곳(레이니스트, 루이드, 마이리얼트립, 바로고, 스마트스터디, 스타일쉐어, 아젠컴, 엔젠바이오, 오티디코퍼레이션, 원티드랩, 웨딩북, 이티에스, 제이투에이치바이오텍, 피엔에이치테크)를 선정했다. 벤처기업협회에 따르면 벤처 천역 기업도 늘었다. 지난 2017년 572개에서 2018년 587개로 스타트업 생태계가 지속적 성장세를 보인다는 신호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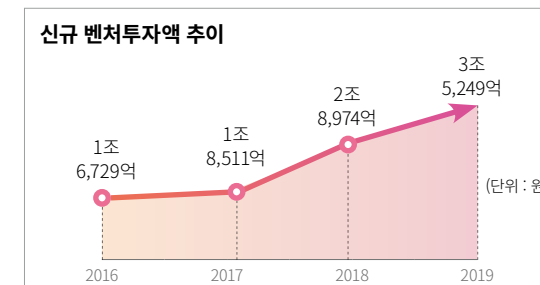
2 쏟아지는 자금... 사상 최대 벤처 투자

2019년 스타트업 투자액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 2016년 신규 벤처투자액은 1조 6,729억 원이었지만 해마다 투자액이 늘어나 2017년 1조 8,511억 원, 2018년 2조 8,974억 원을 기록한 데 이어 2019년에는 3조 5,249억 원(1~10월 기준)에 달했다. 1년 기준으로 2018년 전체 투자액이 3조 4,000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2019년은 또 한 번 기록을 갈아치운 셈이다. 전년 동기 대비 22% 증가한 수치를 보인 만큼 12월까지 따지면 4조 원이 넘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한국벤처캐피털협회 자료에 따르면 투자 기업 수도 지난 2016년 3분기 879개에서 2017년 같은 기간 931개, 2018년 1,039개에 이어 2019년에는 1,210개로 꾸준히 늘었다.

이 같은 벤처투자액 증가에는 투자나 출자금에 대한 소득 공제와 투자 수익 비과세 등 세제 혜택, 투자금 회수 등이 한 몫 한다고 할 수 있다. 개인 엔젤 투자는 30~100%, 벤처펀드 출자는 10%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고 법인이 벤처펀드에 출자해도 법인세 5%를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벤처기업협회는 “벤처투자의 양적 성장에 비해 스케일업 투자와 민간 모험자본 확산, 다양한 엑시트 활성화 등 질적 성장이 앞으로의 과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여기에는 지난 2018년 벤처캐피털의 50억 원 이상 투자 건수가 전체 1.3%에 불과하다는 점, 같은 해 회수금액 비율도 장외매각 53.7%, 평균 13~15년이 소요되는 IPO는 32.5%이며 인수합병 비율은 2.5%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었다.



※출처: 중소벤처기업부(1~10월 기준)

3 우아한형제들... 스타트업 대형 M&A 늘어날까

2019년 12월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기업 가치 40억 달러, 한화 4조 7,500억 원을 평가 받으며 독일 딜리버리히어로에 인수됐다는 소식을 발표했다. 딜리버리히어로가 우아한형제들 국내외 투자자 지분 87%를 인수하겠다고 나선 것. 김봉진 대표는 싱가포르에 50:50 합작법인인 우아DH아시아를 설립하고 회장을 맡아 딜리버리히어로의 아시아 11개국 사업을 맡게 됐다.

우아한형제들측은 이번 인수가 “토종 인터넷 기업의 인수합병 역사상 최대 규모”라고 밝혔다. 회수금액 중 인수합병 비율이 2.5%에 불과한 국내 현실을 감안하면 우아한형제들의 인수합병은 상징적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우아한형제들뿐 아니라 2019년 9월에는 영국 사모펀드인 CVC캐피털이 여기어때를 운영하는 위드이노베이션 지분 85%를 4,000억 원에 인수한 바 있다. 이어 10월에는 딥러닝 머신비전 소프트웨어 수아킴으로 잘 알려진 수아랩을 미국 코그넥스가 2,300억 원대에 인수했다. 또 11월에는 닥터자르트로 잘 알려진 해브앤비 지분 3분의 2를 에스티로더컴퍼니가 1조 원대에 인수했다. 해브앤비의 기업 가치는 17억 달러, 한화 2조 원대다.



4 오픈이노베이션... 스타트업 육성 나선 대기업

오픈이노베이션(Open Innovation)은 기업이 혁신을 위해 필요한 기술과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데 외부 자원을 활용하는 걸 말한다. 내부 개발 역량을 키우는 폐쇄적 혁신이 아닌 외부 자원을 활용하는 개방형 혁신인 것. 중소벤처기업부는 2019년 60개 사 내외로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한편 분사 창업을 지원하는 대기업에는 동반성장지수 우대를 늘리고 사내벤처 지원 출연금 3배를 기업 소득에서 차감하도록 했다. 또 사내벤처가 분사해도 창업기업으로 인정해 창업기업과 같은 소득세와 법인세 혜택을 부여하는 등 대기업이 내외부 스타트업을 육성해 스타트업 생태계 발전과 선순환에 기여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사내 유망 기술을 독립하는 스피아웃으로 성장 동력을 찾겠다며 200여 개 기술을 두고 사업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2019년 3월에는 사내 유망 기술 사업화 프로그램인 스타게이트를 시작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LG그룹은 2019년 3월 시스타트업 아크릴, 로봇기술기업 보사노바로보틱스, 자이어팔콘 등에 투자를 한 데 이어 바야비전센싱, 소프트뱅크 시펀드 등에 연이어 투자를 진행했다. 또 6월 퓨처플레이에 10억 원 가량을 투자해 액셀러레이터를 활용해 그룹 내 미래 사업 발굴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2019년 7월 사내벤처 씨랩(C-Lab)을 민간에 개방해 5년간 1만 명이 넘는 소프트웨어 인력 양성에 나서겠다는 청사진을 밝혔다. 삼성전자는 이미 2012년 씨랩을 시작해 사내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현업에서 벗어나 스타트업처럼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2015년부터

스타트업 독립을 지원해오고 있다.

현대자동차그룹 역시 사내벤처 선발에 적극적이다. 2000년 벤처플라자라는 명칭으로 일찌감치 사내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을 시작한 것. 2017년부터는 그룹 전반으로 확대했다. 2019년 6개팀이 내부 창업에 나서는 등 2019년 5월 기준으로 53팀이 프로그램에 참여해 11개 팀이 분사를 했다. 이들 주요 기업을 포함해 현재 국내 상위 대기업 20~30곳이 사내 벤처링을 진행하고 있다.

다만 사내벤처 장려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표시하는 전문가도 많다. 정부 정책과 기업 내부의 목표 사이에서 발생하는 간극, 기업이 지속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지원 제도 보완 등의 목소리도 있다. 그럼에도 오픈이노베이션이 스타트업과 대기업 모두에 새로운 자극이 된다는 것은 분명하다.



5 지방으로 확산되는 스타트업 생태계

KDB산업은행은 지난 2016년부터 시작한 벤처투자 플랫폼인 넥스트라운드 2.0을 발표하면서 지방과 해외까지 영역 확대에 나선 바 있다. 이에 따라 2018년부터 지역 스페셜라운드를 열기도 했다. KDB산업은행의 지역 스페셜라운드는 상대적으로 투자자를 만나기 어려운 지방에 소재한 스타트업이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기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실제로 2019년 9월 KDB산업은행이 밝힌 바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역별 넥스트라운드를 통해 투자를 받은 지방 소재 기업은 8곳(248억 원)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역시 2019년 7월 인천광역시 송도 투모로우시티를 스타트업파크 조성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또 4월 규제자유특구 출범을 알리고 7월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대구 스마트 웰니스, 전남 e모빌리티, 충북 스마트 안전,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부산 블록체인, 세종 자율주행 등 7개 지역을 선정했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과의 연관성, 혁신성, 사업 완성도, 지역균형발전 등을 고려한 지방 중심 신산업 육성 지원책이라고 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밝힌 2018년 신설법인 수는 수도권 비중이 60.3%로 가장 높지만 부산 4,907개, 경남 3,985개, 광주 3,803개 등 전국 주요 광역시 7곳이 뒤를 잇고 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모두 규제자유특구나 스타트업파크 같은 지방 창업 인프라를 늘리겠다는 정책 기조를 발표했다.



6 시동 건 스타트업 축제... 컴업 2019가 남긴 과제들

10년 후 미래(Meet the Future)는 어떻게 바뀔까. 국내에서 가장 큰 글로벌 스타트업 축제를 표방하는 컴업 2019(K-Startup Week ComeUp 2019) 행사가 2019년 11월 열렸다. 이번 행사에는 전 세계 58개국 참관객 2만 700명, 기업 4,000곳, 투자자 500여 명이 참여했다.

컴업 2019의 취지는 전 세계 유니콘 순위 5위로 발돋움한 국내 글로벌 창업 생태계를 알리고 투자 유치 등 글로벌 진출 교두보를 마련하는 것이다. 창업진흥원을 비롯해 KOTRA, 기술보증기금 등 10여 개에 이르는 창업지원기관이 30개국과 협력해 프로그램을 마련했고 KOTRA는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코리아 행사를 통해 투자 상담 1,073건을 진행하기도 했다. 또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도 컴업 행사 참여와 스타트업 지원·협력 추진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컴업 2019는 11월 25~26일 한·아세안 스타트업 엑스포, 컴업을 진행한 데 이어 11월 27~29일 3일간 메인 행사인 컴업 2019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국내 위주로 진행하던 벤처창업대전을 브랜드화하고 규모를 확대한 것이다.

컴업의 의미는 첫째는 국내에 머물던 스타트업 생태계가 국가를 넘어 국제무대로 가는 모멘텀을 만들겠다는 것. 둘째는 국내 스타트업 행사를 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회부터는 이들 의미를 현실화하는 것을 비롯해 새로운 과제가 필요하다. 차정훈 공동조직위원장은 “다음 회차에선 스타트업 생태계뿐 아니라 대중적으로 인기를 끌 만한 콘텐츠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7 이민화 회장 별세... 또 다른 벤처 영웅을 기다리며

지난 8월에는 급작스러운 소식이 스타트업 생태계에 슬픔을 안겼다. 이민화 벤처기업협회 명예회장이 별세한 것. 고 이민화 회장은 1985년 1세대 벤처 기업인 의료기기업체 메디슨을 창업한 데 이어 1995년에는 벤처기업협회를 설립해 초대회장을 지낸 바 있다.

고인은 스타트업 생태계 발전에 기여해왔다. 벤처기업협회장을 맡으면서 1996년 코스닥 설립과 1997년 벤처기업특별법 제정 등을 주도했으며 2009년에는 기업호민관, 한국기술거래소 이사장, KAIST 겸임교수,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고 이민화 회장은 지난 2015년 벤처스퀘어 기고문 ‘벤처 영웅을 기다리며’를 통해 국내 벤처 롤모델이 사라지고 있다며 창업 활성화를 위해 혁신 안전망, 언론과 정부의 역할 재정립, 노블레스 오블리주, 영웅 만들기를 제시한 바 있다. 2019년에는 벤처인의 멘토로 불리던 영웅을 잃었지만 고인이 남긴 족적은 스타트업 생태계에 다음 벤처 영웅을 탄생시킬 씨앗이 될 것이다.



8 타다 금지법... 규제와 혁신 사이

2019년 12월 국회는 타다식 서비스 금지를 담은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을 일부 수정해 통과시켰다. 물론 패스트트랙 법안 대치 등으로 타다 금지법 처리는 당초 연말에서 처리는 2020년 새해로 넘게 됐다. 하지만 일명 타다 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타다는 공포 후 1년 뒤 시행, 시행 이후에는 유예기간 6개월을 두고 있어 타다는 1년 6개월 시한부 운명을 맞게 된다.

이번 여객사업법 개정안은 플랫폼 업계와 택시업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타다식 모빌리티 산업의 제도권 편입 추진 동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벤처기업협회는 “카풀 서비스와 타다 반대를 외치며 택시기사가 분신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했으며 검찰이 타다를 기소하는 사건도 있었다”는 표현으로 모빌리티 혁신이 가로막힐 위기에 처했다는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스타트업계에선 오랫동안 규제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타다와 택시업계의 갈등은 이 같은 규제 혁신의 현주소와 어려움을 가늠케 한다. 모빌리티 분야 뿐 아니라 공유 숙박이나 바이오를 비롯한 의료 분야, 블록체인 등 이른바 4차산업혁명과 관련한 여러 분야에서도 규제가 스타트업의 성장 잠재력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중기부는 기존 규제와 부딪히면 기존 규제를 제한적으로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시행해 기대를 모으기도 했다. 다만 실제 진행에선 규제 소관부처별 의견 충돌이나 느린 법안 처리 등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 같은 규제 혁신을 위해선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한 건 분명하다.



9 해 넘겨 통과된 데이터3법... 새 시대 원유 확보하나

데이터3법은 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 3가지 개정안을 일컫는 말이다. 데이터3법은 불필요한 중복 규제를 없애 개인과 기업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폭을 넓히자는 취지로 지난 2018년 발의됐다.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의료와 바이오 등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는 빅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해 개인 정보 활용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다. 데이터3법 개정안은 2018년 발의 이후 1년 넘게 국회 소관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2019년 12월 국회 본회의 처리를 합의했지만 결국 국회 파행으로 해를 넘기게 됐다.

임정옥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은 “해외에선 비식별 데이터 등을 활용한 데이터 기반 스타트업이 빠르게 성장해 글로벌 IT 공룡이 된 데 비해 국내에선 데이터 기반 스타트업이 출현하기 힘든 구조”라고 지적한다. 현행 규제 하에서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도 어렵지만 그렇다고 높은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물론 시민단체는 수많은 비식별 정보를 조합해 식별 정보로 재가공하는 등 개인 정보 누출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기도 한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가명 정보 활용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성명법을 냈다.

데이터3법은 결국 해를 넘겨 2020년 1월 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를 계기로 데이터 개방, 유통 활용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10 로컬크리에이터는 지역의 미래가 될까

2019년 10월 11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진흥원,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와 2019년 로컬크리에이터 및 메이커페스타를 개최했다. 로컬크리에이터는 지역 유산이나 특성 등에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을 접목해 창업한 창업가 혹은 예비창업가를 말한다.

김학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지역으로 인재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려면 지역 골목상권을 비롯해 지역 내 지리와 문화, 커뮤니티 등을 연결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로컬크리에이터 역할이 중요하다”는 말로 로컬크리에이터의 가치를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중소벤처기업부는 2020년 정부 예산안에 지원 사업을 반영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실제로 중소벤처기업부는 2020년 1월 발표한 창업지원사업에서 로컬크리에이터 바우처 지원사업을 신설해 2020년 예산 44억 원을 편성했다. 이 사업은 로컬크리에이터 140명을 선발해 최대 3,000만 원씩 지원해 육성하는 것. 이를 통해 지역을 기반으로 한 혁신 비즈니스 모델을 추구하는 스타트업 등장을 지원할 방침이다.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가 출간한 <로컬 크리에이터-지역경제의 미래>에선 “도시 문화와 골목산업을 창출하는 로컬크리에이터의 체계적 육성만이 우리가 원하는 창조도시로 가는 길”이라며 “로컬크리에이터의 모태가 되는 골목산업, 문화창조산업의 경쟁력 증진과 로컬크리에이터 창업과 성장 과정에 대한 탐구가 이를 해결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2019년 지역을 중심으로 로컬크리에이터가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면 2020년에는 정부 지원사업 등이 맞물려 확산될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2019 투자 트렌드 · 2020 투자 전망

2019년 11월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투자동향자료에 따르면 2019년 1~11월까지 진행된 벤처 투자액은 3조 8,000억 원을 넘어섰다.

중기부가 수집한 투자 데이터는 국내 투자 기관에 한정된 것으로 해외 기관 투자까지 합한다면 실제로는 4조 이상 투자금이 국내 중소벤처 기업 및 스타트업에 유입된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벤처스퀘어가 자체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2019년 총 투자 유치금액은 3조 9,692억 6,546만 원으로 중기부 전망치를 웃돈다.

중기부는 2020년에도 벤처투자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평가했다. 벤처캐피털협회가 2019년 107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2020년 투자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응답한 벤처캐피털은 60.6%였으며 2019년과 유사할 것이라는 응답은 21.1%, 감소는 18.3%였다.

스타트업 투자가 2020년에도 확대될 전망이다 가운데 2019년 투자 트렌드를 짚어보고 업계 전문가가 평가한 2020년 투자 방향은 어떨지 전망해봤다.

“오픈이노베이션 사례 늘어날 것”

2019년에는 대·중견기업이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한 스타트업 지원에 나서는 모습이 눈에 띄게 늘어났다. 삼성전자는 사내 벤처 프로그램 씨랩(C-Lab)을 외부로 확장, 삼성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외부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시작했으며 현대자동차는 일반인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스타트업 축제 제로원 페스티벌을 열었다. 행사장에는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이 직접 방문, 참가 스타트업을 격려하는 모습을 보여 향후 스타트업에 대한 현대자동차의 관심을 엿볼 수 있었다.

풍부한 대기업 리소스를 활용, 지역 스타트업에 눈을 돌리는 기업도 증가 추세다. 롯데액셀러레이터의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엘캠프는 부산 지역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부산 1~2기를 선발했으며 스마일게이트의 창업 육성 인큐베이터 오렌지팜은 전주 지역에 센터를 설립, 숨어있는 지역 유망 스타트업 지원에 나섰다.

금융권은 몇 년 전부터 스타트업과 시너지를 모색해 왔다. 우리은행 디노랩, 신한은행의 신한퓨처스랩, NH농협 NH디지털Challenge, KB국민카드 퓨처나인, 하나은행 원큐랩, IBK 창공, KDB 넥스트라운드 등은 행권은 스타트업과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해 단순 자금 지원이 아닌 실제 협력을 통해 새로운 분야 확장에 나서고 있다.

유통 · 이커머스 · 밀레니얼 서비스에 투자 몰려

2019년 가장 많은 투자 금액을 유치한 기업은 2회에 걸쳐 총 4,700억을 확보한 이커머스 플랫폼 위메프다. 위메프에 이어 무신사, 컬리, 티켓몬스터 등 이커머스 분야 기업에 각 500억 이상 대규모 투자가 이뤄졌다. 이는 모바일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쇼핑 트렌드와 소비자 구매 행태를 대변하는 것으로 이 같은 흐름은 2020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박영훈 GS 홈쇼핑 부사장은 “제품과 서비스는 물론 물류와 마케팅 등 유통 전 영역으로 스타트업 발 혁신이 확산되고 있다”며 “시간이 흐를수록 이러한 경향은 가속될 것으로 보이며 혁신의 1차적인 희생자가 대형 오프라인 매장이라는 게 시장에서 증명되고 있다. 오프라인의 반격이 본격화되는 1~2년이 가장 치열한 경쟁의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런 경쟁 가운데에서 도태되고 살아남는 적자생존의 과정을 거쳐 유통산업이 한 단계 진화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택경 매쉬업엔젤스 대표 파트너는 “1인 가구와 젊은 세대가 점점 온라인 커머스/배달에 대한 의존도가 커지고 있어 물류 관련 시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며 “이제는 오프라인 쇼핑물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외식업도 오프라인 접점이 줄어드는 추세다. 따라서 물류 산업은 더욱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2019년에는 10~20대 Z세대와 밀레니얼을 타깃으로 하는 서비스에 대한 투자가 이어졌다. 특히 52시간 제도 시행의 영향으로 야놀자, 트리플, 마이리얼트립, 와그트래블 등 여가와 액티비티 관련 플랫폼과 클래스101, 숨고, 탈잉 등 취미 및 배움 플랫폼 스타트업에 시리즈 A 이상의 투자가 다수 진행됐다. 뉴스레터를 통해 밀레니얼을 위한 콘텐츠를 제작하는 뉴닉과 새로운 형태의 읽을거리를 제공하는 리디와 퍼블리도 투자를 유치하며 콘텐츠 분야 변화를 이끌었다.

온라인 서비스와 더불어 오프라인 커뮤니티에 대한 관심도 늘었다. 오프라인 독서 모임 트레바리는 50억 원 투자를 유치하고 2020년 서울 강남에 11층 규모로 독서모임을 위한 공간을 오픈한다. 권용길 네오플라이 대표는 “2019년에는 버핏서울, 트레바리, 당근마켓 등 오프라인 커뮤니티에 대한 관심과 안다르, 무신사 등 패션 소비재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한 것 같다”며 “2020년 투자 방향은 밀레니얼 세대 타깃 소비재, 서비스에 관심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AI는 가장 핫한 투자 분야

2018년에 이어 2019년 역시 인공지능 스타트업에 대한 관심이 컸다. 앞으로 인공지능은 보통재처럼 모든 기술에 접목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는 가운데 2020년에도 인공지능 관련 기술기업에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이준표 소프트뱅크벤처스 대표는 “2019년은 우리나라에도 의미 있는 AI 기업들이 나타난 한 해였다”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공장 자동화에 혁신을 일으킨 수아랩을 2019년 AI 대표 기업으로 꼽았다. 그는 “가능성 있는 회사들이 현재 한국 시장에서도 전방위적(의료, 제약, 컨슈머, 핀테크 등)으로 많이 보이고 있다”며 “인공지능을 통한 기술 혁신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출발해 글로벌 진출 기업이 되는 것도 가능하다는 걸 보여준 의미 있던 한 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소프트뱅크벤처스는 2020년에도 AI 기업 발굴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이택경 매쉬업엔젤스 대표 파트너는 “1990년대의 웹이나 2010년대의 모바일처럼 새로운 메가트렌드가 필요한데 개인적으로는 AI가 향후 메가트렌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 아직 AI는 일부 분야에서 제한적으로만 이용되고 있지만 점점 다양한 분야로 실생활에서 이용될 것이란 것. 매쉬업엔젤스 역시 AI 기업을 눈여겨볼 계획이다.

빅딜 많았지만... 2020년 투자 위축 전망 나와

2019년에는 핫한 M&A 소식이 여러 차례 들려왔다. 여기어때가 CVC캐피탈에 4,000억 원에 인수됐고 수아랩이 기술 기업으로 해외 기업에 2,300억 규모로 인수되면서 국내에는 기술기업이 없다는 우려를 불식시켰다. 그중 배달의민족 매각은 가장 큰 이슈로 떠올랐다. 업계는 국내 스타트업이 4조 이상의 가격으로 매각됐다는 사실에 고무되기도 했다.

이택경 매쉬업엔젤스 대표 파트너는 “M&A는 보통 신 시장을 개척하거나 경쟁이 심화될 때 그리고 구조조정 과정에서 생기는데 대형 빅딜은 경쟁이 심화될 때 좀 더 많아지지 않나 싶다”며 “지난 10년간 모바일이라는 메가트렌드로 인한 혁신이 어느 정도 포화되면서 제한된 성장 속에서 심화된 경쟁이 이러한 빅딜을 더 유도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국내외로 활발한 딜이 오가는 가운데 2020년에는 국내에서 투자 위축 분위기가 직접적으로 나타날 것이라 우려도 나왔다. 2019년 IPO에 실패한 위워크를 비롯해 수익성 없는 스타트업에 이뤄졌던 대규모 투자에 대한 우려가 직접적으로 드러난 것에 따른 영향이다. 실리콘밸리에서 들려오는 수익성 부진 이슈로 인해 일부 국내 투자자들은 2020년에는 보다 보수적으로 투자할 것이라 계획도 들린다. 업계에서는 국내 투자자 생태계만 본다면 투자사 간 경쟁 과열로 스타트업 기업가치가 어느 정도 고평가된 부분도 있어 수익 또는 최소한의 매출 지표 등이 투자 유치에 있어 중요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2020년 임팩트 투자 확대될 것”

소셜벤처 분야 투자는 2020년 더 확대될 전망이다. 민간과 정부 모두 소셜벤처 활성화에 비중을 두고 있는 모양새다. 정부는 2018년 소셜벤처 활성화 정책을 발표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소셜벤처 창업 활성화, 소셜벤처 성장 촉진 및 허브 구축 등을 추진했다. 2018년에는 소셜벤처 성장을 위한 금융지원정책으로 소셜벤처 특화 펀드인 임팩트 투자 펀드가 처음 조성됐고 2019년에는 1,000억 규모로 조성돼 펀드 운용사 5곳이 투자를 진행했다. 정부는 2022년까지 소셜벤처를 위한 임팩트 펀드를 5,000억 원 규모로 확충하겠다고 밝혀 2020년 소셜 분야 투자는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지역 살리기를 위한 로컬 지원 사업을 위한 투자 지원도 다양해졌다. 일자리를 찾는 청년과 지역 사회를 연결해 지역의 활성화를 돕는 사업들이 늘어난 것. 1세대 소셜벤처 투자사로 불리는 디쓰리쥬빌리파트너스는 2019년 로컬 농가와 연결, 상생을 지향하는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부동산 분야에서도 도시재생, 임대주택에 집중해 투자를 진행했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에는 대기업인 SK그룹과 산업은행도 대규모 임팩트펀드 조성에 나서면서 2020년에도 소셜벤처에 관심이 집중될 예정이다.



벤처스퀘어 | www.venturesquare.net

발행인 : 이석원

편집장 : 주승호

기자 : 이예화, 민혜진

광고 : 이승현

개발 : 이재우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 editor@venturesquare.net

광고 문의 : ad@venturesquare.net



발행사 : 주식회사 앳스퀘어

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31길 21 서울창업허브 202호

전화 : 1877-6503

제작지원 : 서울창업허브 (www.seoulstartuphub.com)

